

항만과 산업

국내·외 항만 및 품목 동향

www.kmi.re.kr

발행일 2024년 12월 31일
편집·발행인 김종덕 원장
발행처 한국해양수산개발원 항만연구본부 항만수요분석연구실
주소 49111 부산광역시 영도구 해양로 301번길 26
 (동삼동 한국해양수산개발원)
TEL 051-797-4800 **FAX** 051-797-4810



국내·외 항만 및 품목 동향

02 국내 항만 주요 동향
 12 국외 항만 주요 동향
 22 품목 및 산업 주요 동향

국내 항만 주요 동향

- ▶ 부산항, 자성대부두 항만기능 한시적 유지
- ▶ 인천항, 내항 1·8부두 재개발 '25년 착공 계획
- ▶ 광양항, '24년 컨테이너 물동량 목표치 초과 달성 전망

국외 항만 주요 동향

- ▶ 중국, '스마트 마이크로그리드'로 탄소중립 항만 구축 선도
- ▶ 미국의 트럼프 2기, 관세리스크와 항만파업 우려로 운임상승 전망
- ▶ HMM, 미주~유럽, 인도~유럽 신규 서비스 개설

품목 및 산업 주요 동향

- ▶ '25년 컨테이너선 공급 과잉 전망
- ▶ 불량 골재 차단을 위한 '골재 유통이력관리제' 시범 운영 시작
- ▶ OPEC+, 가격하락 방어를 위해 원유 감산 '26년까지 연장

01 국내 항만 동향

1) 부산항

1 부산항 자성대부두 항만기능 한시적 유지¹⁾

- 부산항만공사(BPA)는 올해 말 임대차 계약이 끝나는 자성대부두의 임시 활용 계획을 수립했다고 밝힘
 - 자성대부두는 부산항 북항 2단계 재개발사업에 따라 감만·신감만부두로의 이전 계획이 확정되어 지난 10월부터 크레인을 옮기는 등 대대적인 터미널 이동을 시작함
 - 그러나 북항 재개발 2단계 사업계획 수립과 정부 승인 절차가 늦어지면서 자성대부두의 임시 활용방안이 필요하게 됨
 - 이에 따라 BPA는 당분간 자성대부두의 항만 기능을 유지하는 쪽으로 활용 계획을 수립함
- 자성대부두의 화물창고 및 컨테이너 야적장 등은 그대로 사용하고 이를 제외한 부지의 상부 시설물은 연내 철거 작업을 통해 공간을 확보하여 신항의 완전 자동화 하역장비를 제작하는 장소로 활용할 계획임
 - BPA는 이와 함께 자성대부두 내 임시 화물주차장을 조성하여 상반기 운영이 종료되는 우암부두 화물주차장을 대체하기로 부산시와 협의 중이라고 밝힘
- 자성대부두를 임시로 활용할 업체들은 1년 단위로 사용계약을 맺을 방침이나 북항 2단계 재개발사업 추진에 영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임시 사용을 조기 종료할 수 있다고도 밝힘

이나영 전문연구원

051-797-4697, lny0326@kmi.re.kr

1) 연합뉴스(2024.12.20.), <https://www.yna.co.kr/view/AKR20241220091600051?input=1195m>(2024.12.20. 검색)

2 BPA, 부산항 이용 선사 대표자 간담회 개최²⁾

-  BPA는 부산항을 이용하는 주요 국적선사 및 외국적선사 대표들을 초청해 간담회를 개최함

 - 해당 간담회는 글로벌 해운시장의 불확실성이 심화되는 상황 속에서 부산항 환적 물동량의 최대치를 달성할 수 있도록 기여한 선사들에게 감사의 말을 전함과 동시에 홍해 사태 지속, 트럼프 2기 관세 정책, 선사 얼라이언스 재편 등의 불확실성을 앞두고 부산항의 경쟁력 및 운영 효율성 제고를 위해 선사들과 함께 대응하겠다는 의지를 밝힘
-  선사 대표들은 터미널 혼잡 완화와 내부 환적 운송(ITT) 게이트 개발 확대 등 부산항 서비스 개선 및 운영 효율화 방안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제시하였으며, 포트아이(Port-i)를 최초로 선보임

 - 포트아이는 블록체인 기반의 선박·화물 실시간 모니터링 및 이상탐지 시스템으로 화물의 환적 연결에 이상이 발생할 시 즉각 알림이 떠 신속한 대응이 가능함
 - 선사들은 북미로 향하는 아시아 역내 마지막 기항지인 부산항에서 포트아이를 통해 선박·화물 정보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다면, 미주항 화물을 최대한 많이 집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힘
-  BPA는 선사들의 선대 운영 효율화를 극대화할 수 있도록 포트아이를 성공적으로 구축하고, 앞으로 실시간 선박과 화물 정보 제공을 통해 선사들이 안정적인 환적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힘

이나영 전문연구원

051-797-4697, lny0326@kmi.re.kr

2) 부산항만공사 보도자료(2024.12.18.), <https://www.busanpa.com/kor/Board.do?mode=view&mCode=MN1445&idx=33059>(2024.12.20. 검색)

2) 인천항

1 인천항 컨테이너 터미널 '컨' 반·출입 시간 개선³⁾

- ▶ 인천항만공사(IPA)는 '24년 11월 기준 4개 컨테이너 터미널의 평균 턴어라운드 타임은 16.8분으로 '24년 1월(22.3분) 대비 약 5.5분 단축되었다고 밝힘
 - 턴어라운드 타임(Turn-Around Time)은 차량이 컨테이너 반·출입을 위해 터미널에 진입하여 다시 진출하기까지 걸리는 시간을 의미함
- ▶ 한편 '24년 10월까지 인천항의 누적 컨테이너 물동량은 294만 TEU로 전년 동기 대비 4.0% 증가세를 보임
 - 인천항만공사는 물동량 증가세에도 불구하고 턴어라운드 타임이 감소한 것은 협의체 구성을 통한 '인천항 컨테이너 물류 흐름 개선' 과제를 충실히 이행한 데 따른 것이라 밝힘
 - SNCT, HJIT에서는 공 '컨' 반·출입 순서 변경 기능을 도입하였으며, ICT, E1CT는 '공' 컨 장치장 확충에 나선 한편, 컨테이너 봉인 씰(Seal) 자동 지급기 도입(HJIT) 등이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임

최상균 전문연구원

051-797-4699, sgchoi@kmi.re.kr

2 인천항 내항 1·8부두 재개발 '25년 착공 계획⁴⁾

- ▶ 정부는 지난 12월 18일 경제장관회의를 통해 절차를 단축하는 '신속 가동' 지원과제 14개를 선정하였으며, 내항 1·8부두 재개발사업이 포함
 - 이에 해양수산부는 지자체 및 관계기관 협의를 동시에 진행, 중앙항만정책심의위원회에서는 서면 심의를 진행하는 한편, 행정안전부는 지방재정법상 투자심사 등 관련 절차가 신속 이행되도록 지원할 예정임
 - 인천역 인근 내항 1·8부두를 대상으로 하는 재개발사업의 면적은 약 43만 m²로 '28년까지 총 5,906억 원을 투입하여 해양 문화 공간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정부는 재개발사업에 따라 2,530명의 일자리 창출 및 원도심 활성화 등을 기대한다고 밝힘

최상균 전문연구원

051-797-4699, sgchoi@kmi.re.kr

3) 인천항만공사 보도자료(2024.12.22.), [https://www.icpa.or.kr/article/view.do?articleKey=29139&boardKey=217&menuKey=400¤tPageNo=1\(2024.12.23. 검색\)](https://www.icpa.or.kr/article/view.do?articleKey=29139&boardKey=217&menuKey=400¤tPageNo=1(2024.12.23. 검색))

4) 인천일보(2024.12.18.), [https://www.incheonilbo.com/news/articleView.html?idxno=1274334\(2024.12.23. 검색\)](https://www.incheonilbo.com/news/articleView.html?idxno=1274334(2024.12.23. 검색))

3) 여수·광양항

① 광양항 '24년 컨테이너 물동량 목표치 초과 달성 전망⁵⁾

- ▶ '24년 10월 말 기준 광양항의 컨테이너 물동량은 전년 대비 7% 증가한 164만 TEU로 연말까지 197~200만 TEU 달성이 기대됨
- 광양항 컨테이너부두는 '98년 1단계에서 운영을 개시하였으며, 현재는 2-2단계와 3-1단계 8개 선석에서 2개의 터미널이 운영되고 있음
- '18년 241만 TEU를 처리해 최고 실적을 달성한 이후, 코로나19와 항만 간 경쟁 심화, 지역 기반산업 침체 등의 환경변화로 물동량이 지속적으로 감소하며 지난 2년간 186만 TEU를 기록함
- 여수광양항만공사(YGPA)는 컨테이너 물동량 증대를 위해 글로벌 선사 대상 포트세일즈를 통해 유럽·미주 등 7개 신규항로를 유치하는 성과를 달성함
- 이에 광양항은 올해 초 수립했던 목표 물동량인 191만 TEU를 초과 달성할 것으로 기대됨

김영훈 전문연구원

051-797-4668, kyh@kmi.re.kr

5) 여수광양항만공사 보도자료(2024.11.27.), https://www.ygpa.or.kr/hmpg/ygpa/comu/news/anuc/bordContDetail.do?mode=W&bbs_no=213&pst_no=BE340E96BE5D45BA8875D33129E84FE8(2024.12.20. 검색)

4) 울산항

① 울산항만공사(UPA), 유지준설공사 착공⁶⁾

🔹 UPA는 선박의 통항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150억 원을 들여 울산항 유지준설공사를 실시함

- 울산항은 태화강 상류에서 유입된 토사로 인해 일부 항로와 접안구역에 퇴적물이 쌓여 선박 입·출항에 어려움이 있어 UPA는 지난해 울산항 관계자를 대상으로 울산항 전면 수심 측량 및 준설계획 설명회를 개최하고 지반조사를 실시함
- UPA는 '26년까지 약 62만 m³의 퇴적 토사를 준설해 울산항 진입항로와 선회장, 울산본항 및 온산항 내 25개 부두의 안전성을 확보할 계획임

신정훈 전문연구원

051-797-4695, jh.gary.shin@kmi.re.kr

② UPA, 암모니아 벙커링 산업 활성화에 역량 집중⁷⁾

🔹 UPA는 울산항을 친환경 선박연료 종합 공급항만으로 조성하기 위해 암모니아 벙커링 산업에 역량을 집중하고 있음

- 암모니아는 탄소를 배출하지 않는 무탄소 연료로, 국제해사기구(IMO)의 2050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위한 선박연료로 주목받고 있음
- UPA는 지난 1월 한국선급, 롯데정밀화학, HD현대중공업, HMM과 '암모니아 벙커링 산업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하고 실무협의체를 구성했으며, 두 차례 협의회를 가짐
- 협의회를 통해 '위험물로 취급받는 암모니아를 선박연료로 사용하기 위한 제도 및 규제 개선', '안정적인 암모니아 공급을 위한 인프라 구축', '암모니아 벙커링 관련 신사업 육성을 위한 연구 및 실증'을 공동 수행하는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을 강화하고 있음
- 차기 협의회에서는 '26년 세계 최초로 인도될 암모니아 추진선 관련 논의가 진행될 예정임
- 울산항은 국내 암모니아 연간 사용량의 약 60%인 8~90만 톤을 처리하고 있어 친환경 연료 공급항만으로서 인프라 및 제도를 선제적으로 마련하고 있음

신정훈 전문연구원

051-797-4695, jh.gary.shin@kmi.re.kr

6) 울산항만공사 보도자료(2024.11.18.), <https://www.upa.or.kr/portal/board/post/view.do?bclidx=671&mid=0501010000&idx=14429>(2024.12.24. 검색)

7) 울산항만공사 보도자료(2024.11.27.), <https://www.upa.or.kr/portal/board/post/view.do?bclidx=671&mid=0501010000&idx=14434>(2024.12.24. 검색)

5) 평택·당진항

1 평택지방해양수산청, 평택·당진항 액체부두 유지준설 MOU 체결⁸⁾

- ▶ 평택지방해양수산청은 경기평택항만공사 및 5개 액체부두 운영사와 유지준설 업무협약(MOU)을 체결함
 - 참여 기관은 경기평택항만공사, 한국가스공사, 한국석유공사, 한국서부발전, SK가스, 대아탱크터미널 등 6개 기관임
 - 기관 간 협력을 통해 평택·당진항 액체부두의 안전한 수심을 확보하고 선박 접·이안 안전과 하역 운영 효율성을 도모할 예정임

신정훈 전문연구원

051-797-4695, jh.gary.shin@kmi.re.kr

6) 포항항

1 영일만항, 동해 심해 가스전 개발 사업 보조항만 참여⁹⁾¹⁰⁾

- ▶ 동해 심해 가스전 개발 사업 ‘대왕고래 프로젝트’가 12월 20일 시작된 가운데, 영일만항이 1차 시추 보조항만으로 참여함
 - 1차 시추는 약 40일 동안 진행될 예정이며, 영일만항은 시추 과정에서 필요시 부족 기자재 추가 공급과 안정성 확보를 위한 긴급 하역 추진 등 보조항만의 역할을 수행하게 됨
 - 포항시는 보조항만 계약이 향후 추가 시추뿐 아니라 유전 개발 가시화에 대비해 영일만항이 배후 항만으로 나아가기 위해 꼭 필요한 경험을 쌓을 수 있다는 면에서 의미가 크다고 설명함
 - 한편, 이번 시추 작업에는 심해 석유를 전문으로 시추하는 노르웨이 회사 시드릴의 시추선 웨스트카펠라호가 참여했으며, 내년 1월 말에는 시료 채취 마무리, 5~6월 중 중간 발표, 8~9월 정밀 분석이 이루어질 계획임

조성현 연구원

051-797-4690, shcho@kmi.re.kr

8) 평택지방해양수산청 보도자료(2024.11.28.), <https://pyeongtaek.mof.go.kr/ko/board.do?menuIdx=2127&bbsIdx=107516>(2024.12.24. 검색)

9) 연합뉴스(2024.11.24.), <https://www.yna.co.kr/view/AKR20241124022500053>(2024.12.20. 검색)

10) 에너지타임즈(2024.12.20.), <https://www.energytimes.kr/news/articleView.html?idxno=66249>(2024.12.20. 검색)

7) 동해·묵호항

① 묵호항 소형선부두 유지준설공사 준공¹¹⁾

동해지방해양수산청(동해청)은 ‘묵호항 소형선부두 유지준설공사’가 12월 20일 준공됨에 따라 어선 접안 안전성 확보는 물론 어업활동 편의성이 제고되었다고 밝힘

- 본 공사는 공사비 8.1억 원을 투입하여 금년도 10월부터 약 2개월간 시행되었으며, 준설 작업을 통해 제1소형선 부두는 -4.0m, 제2소형선부두는 -3.0m까지 수심을 확보함
- 묵호항 소형선부두는 장기간 지속된 토사 등의 퇴적으로 인해 수심이 낮아져 어획물 적재 어선 등의 부두 접안에 어려움은 물론 어선안전사고 발생 우려가 제기됨
- 이번 준설공사 시행으로 저수심구간이 해소되어 어선 접안 안전성 확보는 물론 외지 대형어선 유치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됨
- 동해청은 묵호항 내 주기적 유지준설을 통해 어선의 접안 안전에 문제가 없도록 하고, 또한 제4차 항만기본계획 수정계획 반영을 통해 제2소형선부두 보강 및 제3소형선부두 연장 사업도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한다고 밝힘

묵호항 소형선부두
유지준설공사 위치도 및
계획평면도



자료 : 동해지방해양수산청 보도자료(2024.12.19.), <https://donghae.mof.go.kr/ko/board.do?menuidx=2536&bbsidx=107934> (2024.12.24. 검색)

이화섭 전문연구원

051-797-4646, hslee@kmi.re.kr

11) 동해지방해양수산청 보도자료(2024.12.19.), <https://donghae.mof.go.kr/ko/board.do?menuidx=2536&bbsidx=107934> (2024.12.24. 검색)

8) 목포항

1 목포항, 재해취약지구 정비사업 추진¹²⁾

- 목포지방해양수산청은 이상기후로 인해 발생하는 태풍, 폭풍해일 등 재해 발생 시 목포항 인근으로 월류되는 해수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목포항 재해취약지구 정비사업’ 추진을 위해 관계기관 협의회를 개최함
- 본 사업은 침수 피해가 클 것으로 예상되는 4개 구역(북항, 신항, 삼학도~남항, 대불부두)에 방호벽을 설치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함
- 총 사업비는 779억 원으로 '29년 준공을 목표로 '25년에 실시설계에 들어갈 계획임
- 관계기관 참석자들은 해당 사업 내용 공유를 통해 지역 의견 수렴과 실시설계 시 적극적인 참여 등을 약속하고 준공 이후의 시설 운영 방안 등도 향후 함께 협의해 나가기로 함

이나영 전문연구원

051-797-4697, lny0326@kmi.re.kr

9) 대산항

1 대산지방해양수산청, 동절기 대비 시설물 및 건설현장 안전점검 실시¹³⁾

- 대산지방해양수산청은 동절기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항만·어항 시설물 및 건설현장에 대해 12월 2일부터 24일까지 안전점검을 실시함
- 점검 대상은 항만시설 20개소, 국가어항 시설 102개소, 건설현장 3개소로 구성되며, 점검 내용은 시설물의 동파 및 파손, 바닥 결빙, 화재 위험 요소와 건설현장 근로자의 안전사고 및 한랭질환 예방 대책을 포함함
- 한파·대설 대비 비상대응계획, 제설 자재·장비 확보, 중대재해처벌법 이행 여부를 중점적으로 확인하고 시정 가능한 사항은 즉시 조치하고, 취약 시설은 예산을 확보해 보수·보강할 계획임

신정훈 전문연구원

051-797-4695, jh.gary.shin@kmi.re.kr

12) 목포지방해양수산청 보도자료(2024.11.29.), <https://mokpo.mof.go.kr/ko/board.do?menuidx=1316&bbsidx=107529>(2024.12.20. 검색)

13) 대산지방해양수산청 보도자료(2024.11.29.), <https://daesan.mof.go.kr/ko/board.do?menuidx=3019&bbsidx=107559>(2024.12.24. 검색)

10) 군산항

① 군산항 제2준설토 투기장 조성¹⁴⁾

📍 군산 2국가 산업단지 서측으로 '29년까지 제2준설토 투기장을 조성할 계획임

- 해양수산부는 군산 및 장항항의 준설토 공사에서 발생하는 준설토 투기를 위한 투기장 조성공사를 12월 22일 발주했다고 밝힘
- 총 5,476억 원이 투입되는 사업으로 총 길이 5.33km의 투기장 호안을 건설할 계획이며, 완공될 경우 214만 m²의 항만 부지가 조성됨
- 현재 활용하고 있는 금란도 및 7부두 투기장의 경우 '28년 포화가 예상되며, 신규로 조성되는 투기장은 모두 3,862만 m³ 준설토를 수용함으로써, 기존 투기장 포화에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최상균 전문연구원

051-797-4699, sgchoi@kmi.re.kr

14) 국민일보(2024.12.22.), [https://www.kmib.co.kr/article/view.asp?arcid=1734849123&code=11131424&cp=nv\(2024.12.23. 검색\)](https://www.kmib.co.kr/article/view.asp?arcid=1734849123&code=11131424&cp=nv(2024.12.23. 검색))

11) 마산항

1 경상남도, 크루즈 관광 활성화 위한 마산항 가포부두 국제 크루즈 전략 기항지 제안¹⁵⁾

- 경상남도는 마산항 가포부두를 국제 크루즈 전략 기항지로 육성하고, 통영항과 삼천포항을 연안 크루즈 기항지로 개발하는 계획을 발표함
 - '24년 11월 26일, 경남관광기업지원센터에서 '경상남도 크루즈 관광활성화 기반구축 용역' 최종보고회를 개최했으며, 도내 크루즈 기반시설 구축 및 관광산업 다변화를 목표로 연구 결과를 발표함
 - 연구 결과에 따르면, 마산항 가포부두는 10만 GT(Gross Tonnage)급 크루즈선이 접안 가능하며, 부두 및 계선주를 보강할 경우 15만 GT급 크루즈선까지 수용이 가능함
 - 삼천포항(신항 5부두)은 4만 GT급, 통영항은 1~2만GT급 크루즈선 접안 가능성 검토, 추가 준설 시 통영항은 최대 5만 GT급까지 접안이 가능하다고 판단함
 - 연구 결과에 따르면, 크루즈 관광은 지역경제 파급효과와 고용효과가 높은 친환경 산업으로, 크루즈 관광객 수는 '23년 3,170만 명에서 '30년 4,250만 명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됨
- 마산항 가포부두에 임시 CIQ(세관·출입국·검역) 터미널을 조성하여 외국적 크루즈선 유치를 위한 필수 기반시설 마련을 계획함
 - 임시 CIQ 터미널은 최소 30억 원 내외의 사업비로 구축 가능하며, '26년 하반기 완공할 계획임
 - 통영항은 해수부 복합해양레저 관광도시 공모사업과 연계해 연안 크루즈 기항지로 육성 계획
- 장승포항은 가덕도 신공항 및 남부내륙철도 등 대규모 SOC 건설계획과 연계한 중장기 크루즈 선사 유치 전략을 제시함
 - '25년도에는 해양수산부 연안 크루즈 시범사업 대상지로 관광자원이 풍부한 삼천포항이 검토되고 있으며, 외국적 크루즈선 유치를 위해 크루즈 유치 전담 인력 확보와 중앙부처 공동마케팅 참여 필요성 강조됨
 - 경상남도는 이번 계획을 통해 크루즈 관광 시장 진입과 관광산업 경쟁력 강화를 도모하며, 크루즈산업 육성을 위한 관련 조례도 제정하여 제도적 기반을 마련함

이화섭 전문연구원

051-797-4646, hslee@kmi.re.kr

15) 해사신문(2024.11.28.), <http://www.haesa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128606>(2024.12.13. 검색)

02 국외 항만 동향

1) 중국



① '24년 11월 중국 수입 14개월 만에 가장 큰 하락세 기록¹⁶⁾

- ❖ '24년 11월 중국의 수출입 모두 시장의 예상치를 밑돌았으며, 특히 수입의 경우 전년 대비 3.9% 감소하여 '23년 9월 이후 가장 큰 하락 폭을 기록함
 - 시장 전문가들은 수입이 전년 대비 증가세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하였으나, 예상과 달리 큰 폭의 감소세를 기록함
 - 수출은 전년 대비 6.7% 증가하였으나 이는 지난달 증가세인 12.7% 증가세보다 크게 둔화된 수치임
- ❖ 이는 중국 국내 수요가 여전히 부진하고 관세 위협이 상존하고 있는 가운데 중국 경제에 대한 우려를 커지게 하고 있음
 - 최대 교역 상대국인 ASEAN 국가로부터 수입이 3% 감소하였으며, 대미 수입 역시 11% 이상 감소함
 - 반면, 수출의 경우 ASEAN 국가로 15% 크게 증가하였으며, 대미 수출 역시 8% 이상 증가함
- ❖ 전문가들은 관세 위협이 미국으로의 수출을 증가시켜 단기적으로는 강세를 이어갈 것으로 전망하였으나, 내년 하반기에는 수출이 감소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함
 - 본격적인 관세 시행 전 미국의 기업들이 중국산 상품을 사전 주문함에 따라 내년 초까지는 수출 성장세가 지속될 것으로 전망함
 - 수입의 경우 11월 소비자 물가지수가 0.2% 소폭 상승하여 5개월 만에 최저치를 기록하면서 디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어, 국내 수요의 회복은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됨

이나영 전문연구원

051-797-4697, lny0326@kmi.re.kr

16) CNBC(2024.12.09.), <https://www.cnbc.com/2024/12/10/chinas-exports-imports-trade-november.html>(2024.12.20. 검색)

2 '스마트 마이크로그리드'로 중국 탄소중립 항만 구축 선도¹⁷⁾

- 중국 렌원강 항만에서 운영을 시작한 중국 최초의 스마트 마이크로그리드가 탄소중립 항만 계획을 실현하기 위한 선도적 이니셔티브로 자리매김하고 있음
 - 렌원강 항만에 구축된 스마트 마이크로그리드 시스템은 5.2MW 규모의 분산형 태양광 발전 설비, 5MW의 신에너지 저장시설, 배터리 교환식 컨테이너 트럭, 전기 예인선 등을 포함하고 있으며 선박 접안, 화물 처리 및 운송 과정에서 탄소 배출을 거의 제로로 줄이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음
 - 중국 정부는 렌원강 항만의 스마트 마이크로그리드 시스템이 탄소중립 항만 개발을 위해 복제 가능하고 확장 가능한 모델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힘
- 렌원강 항만그룹 관계자는 마이크로그리드에 다양한 발전 및 소비 설비를 연결하여 연간 600만 kWh 이상의 청정에너지를 생산할 수 있다고 밝힘
 - 또한, 탄력적인 마이크로그리드 운영을 통해 항만의 연간 전기 비용을 300만 위안(약 41만 7,270달러)을 절감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연간 21,000톤의 석탄 소비를 절약하고 56,000톤의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줄일 수 있다고 밝힘
- 한편, 중국 교통운수부는 지난 '24년 6월, 운송 시설을 대상으로 한 첫 번째 탄소중립 시범 프로젝트를 발표했으며, 여기에는 렌원강으로 포함하여 5개의 항만이 포함됨
 - 탄소중립 항만 시범사업 대상지는 렌원강, 텐진항, 장인항, 황화항, 웨이팡항 총 5곳으로 이들 항만에서는 부두 장비와 운송 설비의 전력 대체 시설 구축과 육상 전력 설비 건설이 진행되고 있음
 - 또한, 풍력과 태양광 에너지를 결합한 녹색 에너지 대체 방안을 채택하고 있으며 이외에도 수소에너지와 지열 에너지도 활용될 전망이다
 - 이를 바탕으로 시범 항만들은 에너지 소비를 모니터링하고 에너지 원천 및 관련 데이터를 기록하는 등 에너지 배치를 최적화하기 위해 스마트 에너지 관리 플랫폼을 구축하고 있음

이나영 전문연구원

051-797-4697, lny0326@kmi.re.kr

17) Xinhuanet(2024.12.11.), <https://english.news.cn/20241211/d49297e92fc349539bcbe32c011603dd/c.html>(2024.12.20. 검색)

2) 아시아



1 싱가포르 항만청(MPA), LNG 병커링 관련 EOI(Expression of Interest) 발표¹⁸⁾

- 🔍 MPA는 LNG 병커링의 확장과 함께 친환경 해양 연료 공급을 위한 신규 해상 솔루션을 모색하는 차원에서 EOI를 발표함
 - EOI의 주요 목표는 선박 간 LNG 하역(재적재)을 확대하는 방안, 액화 바이오 메탄과 같은 대체 연료 공급의 촉진, 병커링 안전성 및 효율성 측면의 부유식 플랫폼 개발 및 메탄 슬립¹⁹⁾ 문제를 완화하기 위한 대책 등에 중점을 두고 있음
 - 해당 프로젝트에 참여는 기존 LNG 병커링 면허가 없어도 가능하며, '25년부터 해상 LNG 재적재를 확대할 수 있는 운영 모델을 제안해야 하며, MPA 차원에서 제안된 솔루션의 운영 가능성과 안전성을 검증할 수 있는 시험 실시 등이 전제 조건임
- 🔍 MPA는 EOI 및 시험에서 얻은 결과를 토대로 추후 LNG 면허 프레임워크를 검토하는 한편, 병커링 산업을 개선하는데 활용할 예정임

최상균 전문연구원

051-797-4699, sgchoi@kmi.re.kr

18) MPA(2024.12.12.), <https://www.mpa.gov.sg/media-centre/details/mpa-launches-eoi-for-sea-based-lng-reloading-and-supply-of-e-bio-methane-as-marine-fuel-in-port-of-singapore>(2024.12.23. 검색)

19) 메탄슬립(Methane Slip) : LNG엔진의 연소과정에서 연료로 사용되지 않고 배기가스와 함께 대기로 빠져나가는 메탄의 양을 의미, 메탄은 온실가스의 한 종류로 메탄슬립은 환경적 이점을 감소시킬 수 있기에 이를 감축하려는 기술 등이 개발 중에 있음

2 도쿄-디즈니, 일본에서의 첫 번째 크루즈 서비스를 위한 협약 체결²⁰⁾

 디즈니 크루즈 라인(Disney Cruise Line)은 일본에서의 첫 번째 크루즈 서비스를 위해 도쿄 정부와 협약을 체결함

- 오리엔탈 랜드 컴퍼니(Oriental Land Co., Ltd: OLC)는 도쿄 정부와 협약을 맺고, 도쿄항을 크루즈의 주요 출발 및 도착 지점으로 선정함
- 새로운 디즈니 크루즈 선박은 '25년 건조를 시작하여 '28년 운항을 시작할 예정임
- 이 선박은 디즈니 위시 클래스에 속하며, 기존의 디즈니 위시, 디즈니 트레저, 디즈니 데스티니와 함께 운항할 예정임
- 이번 프로젝트는 월트 디즈니 컴퍼니가 아닌 다른 조직, 즉 오리엔탈 랜드 컴퍼니가 소유하고 운영하는 최초의 디즈니 크루즈 선박이 될 것임
- 이러한 협력은 디즈니 크루즈 라인의 글로벌 확장을 의미하며, 일본 내 디즈니 팬들에게 새로운 경험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됨

김영훈 전문연구원

051-797-4668, kyh@kmi.re.kr

3 인도, 항만근로자 파업 취소²¹⁾²²⁾

 인도 항만근로자들은 지난 12월 17일로 예정했던 전국적인 파업을 취소한다고 밝힘

- 인도의 약 18,000명의 항만근로자들은 지난 12월 17일부터 무기한 파업을 예고한 바 있음
- 이번 파업은 임금 구조의 개정과 생산성 연계 보상 프로그램의 시행을 정부에 요구하며, 12월 15일까지 이에 대한 조치가 없을 시 파업을 단행할 계획이었음
- 그러나 지난 17일 인도 정부와 항만근로자 연맹 간 양자 임금 협상 위원회에서 합의를 도출하며, 무기한 파업을 피할 수 있게 됨
- 인도 항만청은 노조와 합의한 수정된 임금 협정과 생산성 연계 보상 제도로를 시행하라는 지시를 받을 예정이며, 이번 합의는 인도 항만 운영의 안정성을 유지하고, 노동자들의 권익을 보장하는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으로 기대됨

김영훈 전문연구원

051-797-4668, kyh@kmi.re.kr

20) World of Walt(2024.11.29.), <https://worldofwalt.com/dcl-ship-japan-2028.html>(2024.12.24. 검색)

21) Ship Technology(2024.11.26.), <https://www.ship-technology.com/news/india-port-strike-in-december-could-impact-fashion-supply-chain/>(2024.12.24. 검색)

22) WorldCargo news(2024.12.12.), <https://www.worldcargonews.com/news/2024/12/indian-port-strike-averted/?gdpr=accept>(2024.12.24. 검색)

3) 미주



① 미국 동부 항만 파업 재개 위기로 해상물류 불확실성 확대²³⁾

- 미국 동부 및 걸프 해안 항만 노동자 파업이 자동화 문제로 협상에 난항을 겪으며 '25년 1월 15일 이후 재개될 가능성이 커짐**
 - 국제항만노동자협회(ILA)와 미국해사동맹(USMX)은 임금 인상에는 합의했으나 항만 자동화 도입 문제로 대립 중임
 - 지난 10월 3일간의 파업으로도 54척의 선박 입항 지연과 수십억 달러 규모의 화물이 적체된 바 있어 파업 재개 시 단기적 화물 적체, 공급망 혼란, 운임 상승 등이 예상됨
 - 추가 협상 기한은 '25년 1월 15일이나, 합의점을 찾지 못한다면 더 크고 장기적인 파업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이 불확실성을 키우고 있음
- 미국 트럼프 당선인의 관세 부과 정책과 항만파업이 맞물리며 물류비 상승과 글로벌 물류 대란 가능성이 커지고 있음**
 - 트럼프는 모든 수입품에 10% 보편적 관세와 중국산 제품에 최대 60%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공언한 바 있음
 - 항만 파업 예상 시점인 '25년 1월 15일과 트럼프 취임 첫날인 '25년 1월 20일이 아시아권 설 연휴 물량 급증 시기와 겹쳐 물류비 부담 증가로 화주들은 서부 항만으로의 운송지 변경 등 추가 비용을 지출하고 있음
 - 물량 밀어내기와 운임 폭등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과거 사례처럼 상하이컨테이너지수(SCFI) 급등이 우려됨

신정훈 전문연구원

051-797-4695, jh.gary.shin@kmi.re.kr

23) 이코노믹리뷰(2024.11.26.), <https://www.econovill.com/news/articleView.html?idxno=674753>(2024.12.24. 검색)

2 미국의 트럼프 2기, 관세리스크와 항만파업 우려로 운임상승 전망²⁴⁾

-  미국 항만노조 파업 가능성, 관세 정책 변화, 중국 춘절 등이 내년 상반기 해상운송 수요 급증과 운임 상승을 유발하며 물류시장의 불확실성을 확대할 것으로 전망됨
 - 대한상공회의소는 12월 12일 물류위원회 주최로 ‘트럼프 2.0시대, 2025년 물류시장 전망’ 세미나를 열고 트럼프 집권 2기 정책 변화에 따른 교역환경·글로벌 공급망 이슈 등을 점검하고 우리 기업의 대응방안을 모색함
 - 제조업체의 완제품 밀어내기 선적이 증가하면서 해상운임은 급등할 가능성이 크며, 특히 미국 항만노조 협상 시한 만료와 맞물려 선박 적체 및 선복 부족 현상이 발생할 수 있음
 - 트럼프 행정부는 모든 수입품에 10% 보편적 관세와 중국산 제품에 최대 60% 관세를 부과할 방침으로, 이는 중국을 포함한 주요 교역국들의 보복 관세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음
 - 탈중국화로 인해 베트남, 인도 등 동남아시아는 물론 중동 및 라틴아메리카가 새로운 물류 허브로 주목받고 있으며, 글로벌 공급망이 이들 지역으로 다각화되는 흐름이 가속화되고 있음
 - 국내 물류산업은 택배, 배달 등 생활물류산업의 폭발적 성장으로 연평균 7.4%의 매출 증가를 기록했으나, 효율성 향상을 위한 물류시스템 스마트화와 인프라 개선 투자가 시급함

신정훈 전문연구원

051-797-4695, jh.gary.shin@kmi.re.kr

24) 디지털타임스(2024.12.12.), [https://www.dt.co.kr/contents.html?article_no=2024121202109932102003&ref=naver\(2024.12.24. 검색\)](https://www.dt.co.kr/contents.html?article_no=2024121202109932102003&ref=naver(2024.12.24. 검색))

4) 유럽



① HMM, 미주~유럽, 인도~유럽 신규 서비스 개설²⁵⁾

- 📍 HMM은 지난 17일, 내년 2월부터 대서양과 인도~유럽 구간에서 컨테이너 항로를 신설할 계획을 발표함
 - HMM은 '30년까지 약 23조 5천억 원을 투자해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고자 하는 중장기 전략 중 하나로 핵심 노선 확대를 발표한 바 있으며, 이에 따라 유럽과 미주의 주요 항만을 잇는 대서양 횡단항로인 TA1(Transatlantic 1)을 7년 만에 다시 개설함
 - 유럽~미주 노선은 지리적으로 아시아 선사의 진출이 어려운 항로이며, HMM은 해운업 장기 불황으로 '18년 당시 철수했으나, 최근 몇 년간 호황으로 투자 여력이 생겨 해당 노선에 4,600TEU급 컨테이너선 10척을 우선 투입하기로 결정함
 - 이번 대서양 항로 진출로 HMM은 태평양, 인도양 등 주요 동서항로에서 모두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되어 글로벌 고객의 다양한 요구에 부응할 수 있는 네트워크를 구축한 것으로 분석됨
 - 또한 최근 물동량이 급증하는 인도 시장을 고려해 인도와 북유럽을 잇는 새 노선에도 6,000TEU급 컨테이너선 11척을 투입하기로 결정했으며, 기존 인도~지중해, 인도~북미 동안 항로와 연계해 인도 지역에서 사업을 확대할 계획임

조성현 연구원

051-797-4690, shcho@kmi.re.kr

25) Lloyd's List(2024.12.17.), <https://www.lloydslist.com/LL1151855/HMM-returns-to-transatlantic-trade-with-new-Europe-US-service>(2024.12.20. 검색)

2 미국 원유 유럽향 수출 감소 전망²⁶⁾

-  서부 텍사스산 중질유(WTI)와 브렌트유의 가격 차이 축소 및 해상 운송비 상승으로 대서양 횡단 수출 경제성이 하락함에 따라, 내년 1월부터 미국의 유럽향 원유 수출이 감소할 것으로 전망됨
- '24년 11월 기준, 미국의 암스테르담-로테르담-앤티워프(ARA) 지역으로의 원유 수출은 하루 약 77.1만 배럴을 기록하며 사상 최대치를 달성했으며, 이는 '24년 10월 WTI가 브렌트유 대비 배럴당 4달러 이상의 할인 폭을 기록한 것에 기인함
 - 그러나 최근 WTI와 브렌트유 간의 가격 차이는 배럴당 약 3.4달러까지 축소됐으며, 이는 '23년 10월 이후 가장 작은 차이임
 - 원유 시장에서는 통상적으로 이 가격 차이가 배럴당 4달러 이상일 때 미국 원유 수출이 수익성이 유지되는 것으로 간주하며, 현재 수준에서는 대서양 횡단 수출이 비경제적임
 - 더불어 미국의 주요 원유 저장 허브인 쿠싱의 12월 원유 재고는 2,300만 배럴로 17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으며, 미국 내 수요 증가로 인해 수출 감소 전망에 대해 무게가 실리는 상황인 것으로 분석됨

조성현 연구원

051-797-4690, shcho@kmi.re.kr

26) Reuters(2024.12.20.), <https://www.reuters.com/markets/commodities/us-crude-exports-europe-expected-fall-jan-shipping-economics-weaken-2024-12-19/> (2024.12.20. 검색)

5) 오세아니아



1 포트빌라(Port Vila), 바누아투 강진으로 크루즈 운영 차질 및 지역 경제 타격²⁷⁾

- 바누아투의 수도 포트빌라 인근에서 발생한 7.3 규모의 강진으로 항만 시설이 심각한 피해를 입고 크루즈 일정이 차질을 빚음**
 - 이번 지진은 현지 시간 12시 47분에 포트빌라에서 약 19마일 떨어진 곳에서 발생했으며, 이후 5.5, 5.4, 5.1 규모의 여진이 잇따라 감지됨
 - 적십자에 따르면 이번 지진으로 14명이 사망하고, 200명 이상 부상당하는 등 약 8만 명의 주민이 피해를 입었으며 이 중 약 4만 명이 어린이로 추정됨
 - 포트빌라 항만 시설은 대규모 산사태로 인해 국제 터미널이 고립되고 부두 일부가 매몰되는 등 심각한 피해를 입음
- 로알캐리비안의 Quantum of the Seas는 지진 발생 당시 미스터리 아일랜드에 정박 중이었으며, 포트빌라 기항 일정을 취소하고 미스터리 아일랜드로 복귀, 탑승객들은 가벼운 진동을 느꼈으나 부상자는 발생하지 않음**
 - P&O 크루즈 오스트레일리아의 Pacific Encounter와 Pacific Adventure, 실버시와 큐나드의 선박들은 포트빌라 기항 일정 변경 여부를 검토 중임
 - Carnival Australia는 세 척의 선박을 다른 기항지로 우회시켰으며, 크리스마스 전 항로에 포함된 승객들에게 관련 상황을 공지함
- 크루즈 관광은 바누아투 경제의 핵심으로, 선박 한 척당 약 26만 호주달러(AU\$)의 경제 효과를 창출하며, 승객 1인당 간접 소비는 약 125호주달러에 달함**
 - 항만 폐쇄 및 크루즈 일정 취소는 바누아투 경제 회복에 중대한 도전 과제로 작용함
- 바누아투 정부는 포트빌라 지역에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피해가 심각한 지역에 대해 오후 6시부터 오전 6시까지 7일간 통행 금지령을 발동함**
 - 세계보건기구(WHO)는 지역 보건 당국 및 빌라 중앙병원과 협력하여 의료 지원을 진행 중이며, 복구 작업은 항만 기반 시설 복구에 중점을 둠
 - 항만 복구 일정은 아직 불확실하며, 크루즈 선사들은 승객 안전을 보장하고 바누아투 복구를 지원하기 위해 계속 상황을 주시하며 일정 조정을 진행할 예정임

이화섭 전문연구원

051-797-4646, hslee@kmi.re.kr

27) Cruise(2024.12.20.), <https://cruisepassenger.com.au/news/vanuatu-earthquake-causes-cruise-visits-to-be-cancelled/>(2024.12.24. 검색)

6) 아프리카



① DP World, 서아프리카 새로운 컨테이너 터미널 건설 착수²⁸⁾

DP World가 세네갈의 Ndayane항 건설을 시작하며 서아프리카 주요 물류 허브로 육성할 계획을 발표함

- Ndayane 항만 프로젝트는 총 12억 달러 규모로 진행되며, 세계 최대 컨테이너선을 처리할 수 있는 최신 설비와 5km 길이의 항로를 포함함
- '24년 12월, 준설선 Willem Van Rubroeck가 도착하며 본격적으로 공사가 시작됨
- 1단계는 840m 길이의 부두와 연간 120만 TEU 처리 능력을 갖춘 터미널 건설이 포함됨
- 2단계는 410m 길이의 추가 부두 건설을 통해 서아프리카의 주요 물류 허브로 자리매김할 예정임

DP World는 세네갈 다카르항의 처리능력을 '08년 30만 TEU에서 '23년 80만 TEU로 확장함

- 다카르 항만은 도심 지역에 위치하여 확장이 제한적이며, Ndayane 항만은 세네갈의 장기적인 무역 및 경제 성장 목표를 지원하는 전략적 대안으로 개발됨

영국 국제투자청(BII)에 따르면, Ndayane 항만은 세네갈의 GDP를 3% 증가시키고, '35년까지 약 150억 달러의 추가 무역 가치를 창출할 잠재력을 가짐

- 공사 기간 동안 1,800개 이상의 일자리가 창출되며, 운영이 시작되면 세네갈 전역에서 230만 개의 일자리를 지원할 것으로 기대됨
- 이 중 약 22,000개는 직접적으로 무역 확장과 관련된 일자리임

DP World는 Ndayane 항만은 세네갈의 위상을 높이고, 아프리카 대륙 전체의 무역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발표함

- Ndayane 항만 인근에는 경제특구와 블레이즈 디아뉴 국제공항을 포함한 경제 개발 프로젝트도 진행될 예정, 영국 국제투자청과 협력하여 항만 및 지역 경제 개발을 추진함
- Ndayane 항만 프로젝트는 서아프리카의 물류 및 경제 허브로 발전하기 위한 중요한 단계로, 세네갈 무역 및 지역 발전에 중추적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됨

이화섭 전문연구원

051-797-4646, hslee@kmi.re.kr

28) Port technology(2024.12.23.), <https://www.porttechnology.org/news/cosco-shipping-launches-southeast-africa-service/>(2024.12.24. 검색)

03 품목 및 산업 동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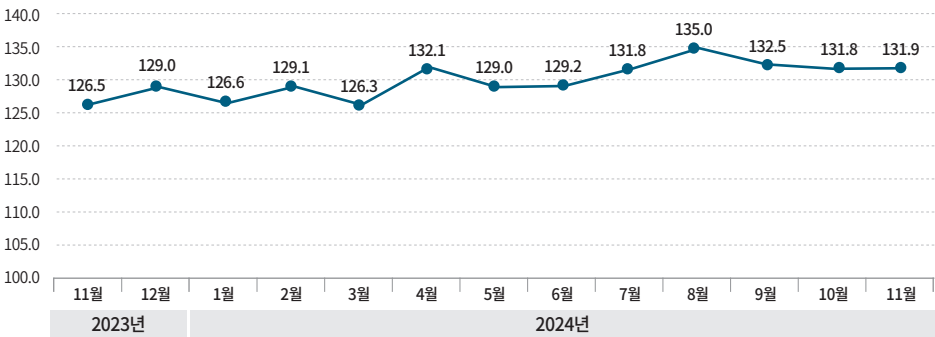
1) 컨테이너



컨테이너 항만물동량
처리지수

1 '24년 11월 컨테이너 항만물동량 전월 대비 0.1% 소폭 증가²⁹⁾

- '24년 11월 컨테이너 항만물동량 지수는 전월 대비 0.1%, 전년 동월 대비 4.3% 증가한 131.9p를 기록함
 - 중국 항만에서의 컨테이너 물동량 지수가 141.1p로 전월 대비 0.8% 감소하면서 유럽 지역의 물동량 증가세를 상쇄시킴
 - 유로존 북부와 독일 지역의 11월 항만물동량 지수(North Range Index)는 115.9p로 전월 대비 1.2%, 전년 대비 13.0% 증가함



구분	2023년		2024년											증가율(%)	
	11월	12월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전월 대비	전년 동월 대비
Total	126.5	129	126.6	129.1	126.3	132.1	129	129.2	131.8	135	132.5	131.8	131.9	0.1	4.3
China Index	138.9	143.7	140.7	138.8	133.9	155.7	140.4	140.5	146.1	149.9	145	142.2	141.1	-0.8	1.6
North Range Index	102.6	103.9	95.5	108.5	112.3	110.7	111.2	110.2	111.2	114.6	112.6	114.5	115.9	1.2	13.0

주: 2015=100, 계절조정
자료: IISL, <https://www.isl.org/en/services/nwiisl-container-throughput-input-index-1124>(2024.12.20. 검색)

이나영 전문연구원
051-797-4697, lny0326@kmi.re.kr

29) ISL(2024.12.19.), <https://www.isl.org/en/services/nwiisl-container-throughput-input-index-0924>(2024.12.20. 검색)

2 '25년 컨테이너선 공급 과잉 전망³⁰⁾

- 영국 글로벌 해운 서비스 회사인 Braemar 최근 시장보고서에 따르면 '24년 컨테이너선 공급 과잉은 약 3~4% 수준에 이를 것이라고 발표함
 - 당초 올해 컨테이션 공급 과잉은 12~13% 수준으로 전망하였으나 홍해 리스크의 영향으로 공급 과잉이 크게 억제되었다고 밝힘
- 홍해 리스크 영향으로 '24년 신조선 투자가 급증하면서 '25년 공급 과잉 수준은 7~8%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함
 - 컨테이너선 시장에서의 기본적인 공급 과잉에도 불구하고, 홍해 리스크에 따른 희망봉 경우에 대한 불확실성으로 인해 '24년 신조선에 대한 투자가 다시 급증함
 - 약 220척의 선박이 인도될 예정이며 이는 총 190만 TEU로 추산되고 있어 '25년에는 올해 대비 약 2배로 공급 과잉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함
 - 인도 예정인 선박 가운데 14,000~18,000TEU급 선박이 100척, 7,500~10,000TEU급 선박이 75척으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음
- 컨테이너선 공급 대비 수요가 크게 증가할 가능성은 매우 낮아 홍해 리스크가 해소된 이후 기존 및 인도 예정인 컨테이너선의 용량을 채우기에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됨

이나영 전문연구원

051-797-4697, lny0326@kmi.re.kr

30) Seatrade Maritime(2024.12.06.), <https://www.seatrade-maritime.com/containers/container-shipping-overcapacity-set-to-double-in-2025>(2024.12.20. 검색)

2) 양곡



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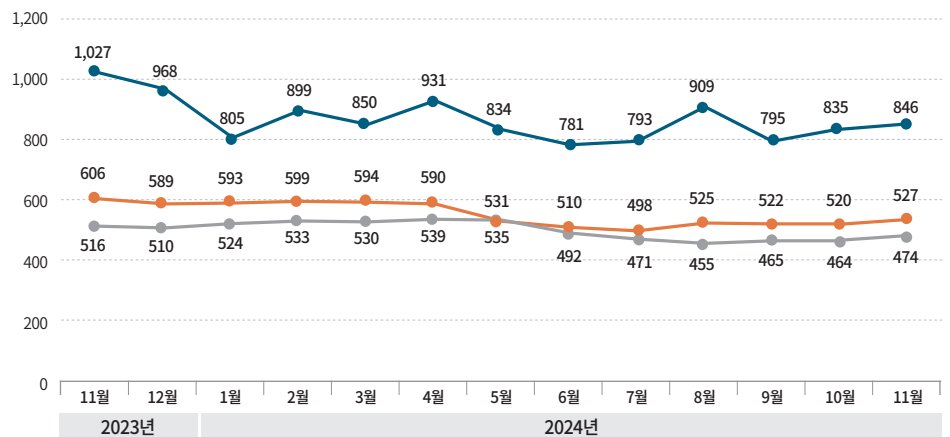
'24년 11월 밀(사료용)과 옥수수(제분, 사료용)의 수입단가는 전년 동월 대비 감소추세 기록³¹⁾

- 11월 식용 밀의 수입단가는 전년 동기 대비 0.3% 증가한 톤당 337달러를, 사료용은 10.6% 감소한 톤당 261달러를 기록함
- 옥수수 수입단가는 식용에서 전년 동기 대비 5.4% 감소한 톤당 261달러, 사료용의 경우 톤당 248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5.7% 감소함
- 대두박(사료용)의 11월 수입단가는 톤당 474달러로 전월 대비 2.2% 증가, 식용 역시 전월 대비 1.3% 증가한 톤당 846달러를 기록함

(단위: 달러/톤)

콩 용도별 수입단가 추이

● 콩 식용
● 콩 채유용
● 콩 대두박



(단위: 달러/톤)

밀과 옥수수 수입단가 추이

구분		2023년		2024년											증가율(%)	
		11월	12월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전월 대비	전년 동월 대비
밀	제분	336	328	341	335	334	331	319	324	315	301	315	316	337	6.6	0.3
	사료용	292	277	274	274	275	273	276	277	262	265	267	257	261	1.6	-10.6
옥수수	제분	276	276	292	267	272	276	258	277	256	264	269	273	261	-4.4	-5.4
	사료용	263	252	258	258	257	258	260	251	246	246	248	247	248	0.4	-5.7

최상균 전문연구원

051-797-4699, sgchoi@kmi.re.kr

31) 한국농촌경제연구원 국제곡물 관측월보(2024.12.02.), http://www.krei.re.kr:18181/board/market_trande/view/wr_id/7921(2024.12.23. 검색)

2 중국 헤이룽장성(黑龙江省), 올해 약 8,000만 톤 이상의 곡물 생산으로 중국 최대 곡물 생산지 유지³²⁾

- 헤이룽장성은 ‘중국의 곡물 창고’로 연간 생산량에 있어 올해 처음으로 8천만 톤을 넘어섰으며, 이는 중국 전체 생산량의 11%를 차지함
 - 헤이룽장성의 농업농촌청은 자연재해에도 불구하고, 대두 생산량 증가가 전체 곡물 생산량 증가를 견인하였으며, 이는 고품질 종자 재배, 현대적 농업 관리에 따른 것이라 밝힘
 - 헤이룽장성은 중국의 최대 대두 생산지로 생산 증대를 통해 수입 의존도를 줄이는데 선도적 역할을 하고 있으며, 해당 지역에서 생산된 대두는 낮은 단백질 함량 및 수입 대비 저렴한 가격으로 기름 압착용에 적합함
 - 한편, 헤이룽장성의 농업부는 연간 약 3억 위안을 종자산업 발전 차원에서 지원하고 있으며, 고품질 품종 135종 추천, 봄철 냉해 및 여름철 홍수에 대응할 수 있는 새로운 품종의 종자 제공 등에 나서고 있음

최상균 전문연구원

051-797-4699, sgchoi@kmi.re.kr

32) CHINA DAILY(2024.12.17.), <https://www.chinadaily.com.cn/a/202412/17/WS6760ccfaa310f1265a1d33bb.html> (2024.12.23. 검색)

3) 시멘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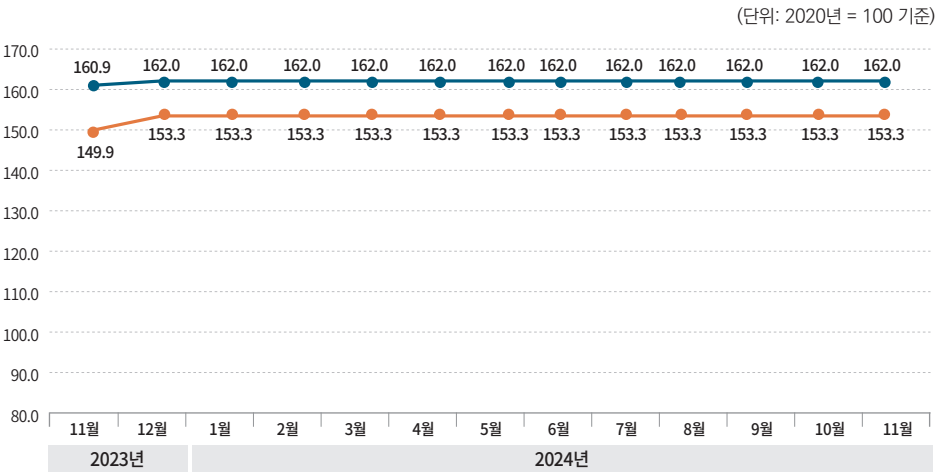
1 11월 시멘트 생산자물가지수 보합세 지속

’24년 11월 포틀랜드 및 고로슬래그 시멘트의 생산자물가지수는 전월과 동일한 162.0p 및 153.3p를 기록함

- 포틀랜드 시멘트는 전년 동월 대비 0.7% 증가, 고로슬래그 시멘트는 2.2% 증가함
- 포틀랜드와 고로슬래그 시멘트의 생산자물가지수는 ’23년 9월 이후 소폭 증가세를 나타냈으나 ’23년 12월에 이후 변동 없이 12개월간 보합세를 나타냄

시멘트 생산자물가지수

● 포틀랜드
● 고로슬래그



구분	2023년		2024년											증가율(%)	
	11월	12월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전월 대비	전년 동월 대비
포틀랜드	160.9	162.0	162.0	162.0	162.0	162.0	162.0	162.0	162.0	162.0	162.0	162.0	162.0	0.0	0.7
고로슬래그	149.9	153.3	153.3	153.3	153.3	153.3	153.3	153.3	153.3	153.3	153.3	153.3	153.3	0.0	2.2

자료: 국가통계포털 생산자물가지수(원자료: 한국은행 생산자물가조사), [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301&tblId=DT_404Y016&conn_path=l2\(2024.12.24. 검색\)](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301&tblId=DT_404Y016&conn_path=l2(2024.12.24. 검색))

이화섭 전문연구원
051-797-4646, hslee@kmi.re.kr

2 건설경기 침체와 고환율로 시멘트 업계 ‘초긴축 경영’ 돌입³³⁾

-  시멘트 업계는 내년 주요 경영 키워드로 ‘긴축’을 선정하며 선제적 비용 절감에 나섬, 건설업 부진과 고환율로 유연탄 가격 상승, 전기료 인상, 환경 규제 강화 등이 주요 요인으로 작용함

 - 국내 주요 시멘트 제조사인 쌍용C&E, 한일시멘트, 아세아시멘트, 성신양회, 삼표시멘트 등은 모두 내년 ‘비상 경영’ 수준의 사업 계획을 수립함
 - 쌍용C&E는 '25년 국내 시멘트 수요가 4,200만 톤 이하로 감소할 것으로 예상하며 순환연료 사용 비중 확대를 통한 원가 절감을 추진 중임
 - 성신양회는 내년 수요를 4,000만 톤 이하로 전망하며 순환연료 사용 확대를 검토 중임
 - 순환연료는 환율 영향을 덜 받으나 설비 구축이 필요해 추가 비용 발생, 시멘트 업계는 설비 한도 내에서 순환연료 사용률을 최대한 끌어올리는 것이 목표라고 밝힘
 - 삼표그룹은 건설 경기 침체 장기화에 대응해 신산업 진출을 강화하며 매출원을 다각화하려는 방안을 추진 중임
-  한국시멘트협회는 성수기에도 출하량이 크게 줄어 올해 시멘트 출하량이 최근 10년간 최저치를 기록할 가능성이 있다며 환경 규제 강화와 정책 변수로 인해 내년도 전망도 밝지 않다고 전망함

이화섭 전문연구원

051-797-4646, hslee@kmi.re.kr

33) 서울경제(2024.12.23.), [https://www.sedaily.com/NewsView/2DI8EWEPYY/GD07\(2024.12.24. 검색\)](https://www.sedaily.com/NewsView/2DI8EWEPYY/GD07(2024.12.24. 검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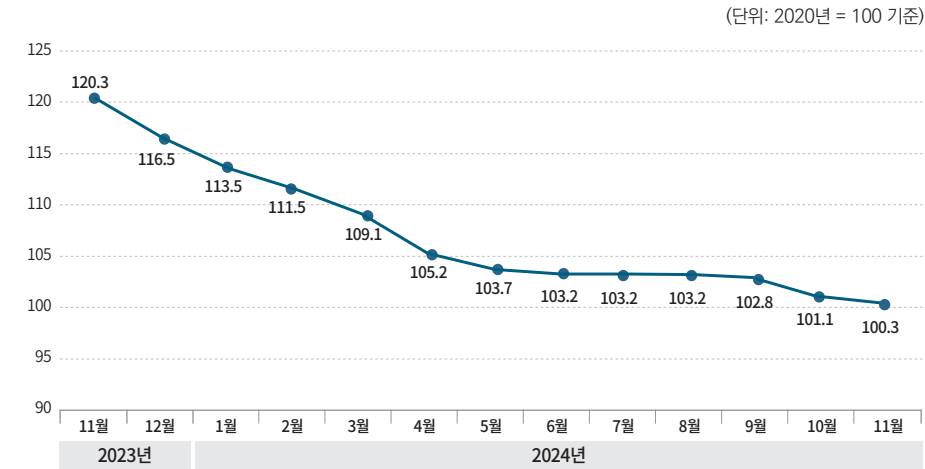
4) 모래



모래 생산자물가지수

1 11월 생산자물가지수 100.3p 기록, 3개월 연속 감소세

’24년 11월 모래 생산자물가지수는 전월 대비 0.8%, 전년 동월 대비 16.6% 감소함



구분	2023년		2024년											증가율(%)	
	11월	12월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전월 대비	전년 동월 대비
모래	120.3	116.5	113.5	111.5	109.1	105.2	103.7	103.2	103.2	103.2	102.8	101.1	100.3	-0.8	-16.6

자료: 국가통계포털 생산자물가지수(원자료: 한국은행 생산자물가조사), [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301&tblId=DT_404Y016&conn_path=I2\(2024.12.24. 검색\)](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301&tblId=DT_404Y016&conn_path=I2(2024.12.24. 검색))

이화섭 전문연구원
051-797-4646, hslee@kmi.re.kr

2 불량 골재 차단을 위한 ‘골재 유통이력관리제’ 시범 운영 시작³⁴⁾

정부는 불량 골재 유통을 방지하고 건설공사의 품질을 확보하기 위해 ‘골재 유통이력관리제’를 시범 운영한다고 발표함

- 국토교통부는 골재 채취 업체, 골재 종류, 수량, 납품 장소, 차량번호 등을 기록한 표준 납품서를 마련, 10개 골재 채취 업체를 대상으로 12월 13일부터 유통이력제를 시범 운영함
- 골재 판매자는 골재자원정보시스템(AGRIS)에 표준 납품서를 등록해야 하며, 이를 통해 국토부, 지방자치단체, 건설업계 등이 골재 원산지와 유통 이력을 파악할 수 있음
- 골재 가격 급등과 환경 규제로 천연 골재원의 감소로 인해 불량 골재 유입 가능성이 증가함
- 골재는 레미콘의 주요 원료로, 출처를 알 수 없는 불량 골재는 레미콘 강도를 저하시키고 품질 문제를 야기함
- 레미콘의 품질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만, 시멘트와 혼합된 이후에는 품질 확인이 어렵기 때문에 사전 품질 관리가 중요함

골재 유통이력제가 확대되려면 국회에 발의된 골재채취법 개정안이 통과되어야 함

- 개정안은 골재 판매자와 수요자가 표준 납품서를 통해 거래하고 이를 AGRIS에 등록하는 것을 의무화하는 내용을 포함함
- 정부는 '26년까지 골재 이력 관리를 의무화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음

국토교통부는 골재 이력 관리는 건설공사 품질 확보의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며 골재 채취 및 수요 업계와 건설업계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하다고 강조함

- 이번 제도 도입으로 골재의 품질 관리가 강화되어 건설공사의 안전성과 품질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됨

이화섭 전문연구원

051-797-4646, hslee@kmi.re.kr

34) 연합뉴스(2024.12.12.), <https://www.yna.co.kr/view/AKR20241212097800003>(2024.12.24. 검색)

5) 석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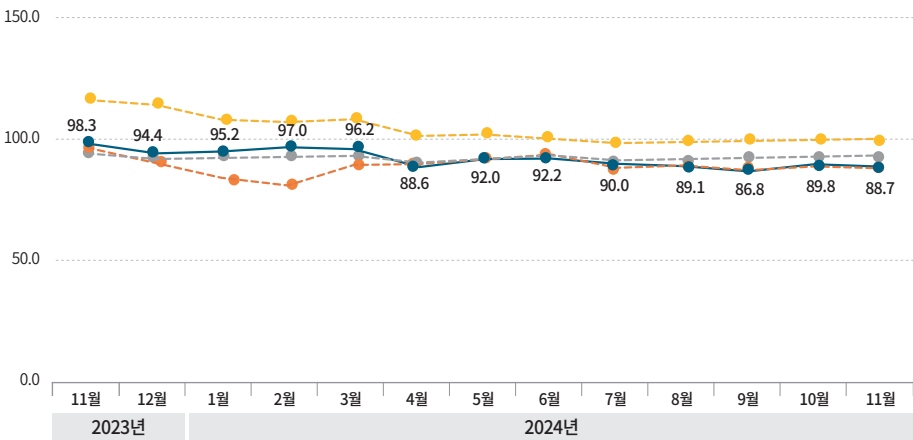
유연탄 가격 추이

- 뉴캐슬
- 리차드베이
- 칼리만탄
- 중국남부

1 '24년 11월 유연탄 가격 전월 대비 소폭 감소

- 호주 뉴캐슬산(5,500kcal/kg, NAR) FOB 기준 연료탄 11월 평균가는 톤당 88.7달러로 전월 대비 1.2% 감소함
- 지역별로는 남아공 리차드베이산과 중국 남부의 유연탄 가격은 각각 0.9%, 0.5% 감소한 반면, 인도네시아 칼리만탄산 유연탄 가격은 0.6% 증가함(전월 대비 기준)

(단위: 달러/톤)



구분	2023년		2024년											증가율(%)	
	11월	12월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전월 대비	전년 동월 대비
뉴캐슬	98.3	94.4	95.2	97.0	96.2	88.6	92.0	92.2	90.0	89.1	86.8	89.8	88.7	-1.2	-9.8
리차드베이	96.7	89.7	84.1	81.0	89.6	90.1	92.4	93.9	88.3	89.5	87.5	89.0	88.3	-0.9	-8.7
칼리만탄	94.5	91.9	92.6	92.7	93.3	90.4	92.4	93.7	91.5	91.6	91.9	93.1	93.6	0.6	-0.9
중국남부	116.3	114.5	108.1	107.2	108.4	101.5	102.0	99.7	98.4	99.2	99.8	100.7	100.2	-0.5	-13.8

자료: 한국자원정보서비스, <https://www.komis.or.kr/komis/price/mineralprice/ironoreenergy/pricetrend/ironOreEnergy.do>(2024.12.26. 검색)

김영훈 전문연구원
051-797-4668, kyh@kmi.re.kr

2 정부-지자체-발전사, 석탄발전 전환 로드맵 논의³⁵⁾

산업통상자원부는 관계부처·지자체·발전5개사(한국남동·동서·중부·남부·서부발전)와 석탄발전 전환 협의체 회의를 지난 12월 10일 개최함

- 석탄발전 전환 협의체는 지난 11월 산업부-발전5개사 신입사장단 간담회의 후속 조치로 석탄발전 전환 과정에서 필요한 주요 현안을 논의하기 위해 구성됨
- 회의 참석기관들은 석탄발전 인프라의 재활용 방안 등을 포함하여 석탄발전 전환이 지역경제·일자리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을 최소화하는 방안 등 ‘석탄발전 전환 로드맵’을 함께 수립하기로 함
- 석탄화력발전은 내년 12월 태안화력 1호기를 시작으로 하동화력(1~6호기), 보령화력(5,6호기), 삼천포화력(3~6호기), 동해화력(1,2호기), 당진화력(1~4호기) 폐쇄 등 본격적인 대전환을 앞두고 있음
- 이번 회의는 첫 번째 회의로서, 앞으로 지속적인 회의를 통해 석탄화력발전소 폐지 이후 남겨지는 발전설비, 송전선로, 부지 등의 적절한 활용방안을 고민하고, 지역경제·일자리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모색해 나가기로 함

김영훈 전문연구원

051-797-4668, kyh@kmi.re.kr

35) 머니투데이(2024.12.10.), <https://news.mt.co.kr/mtview.php?no=2024121011250895100>(2024.12.20. 검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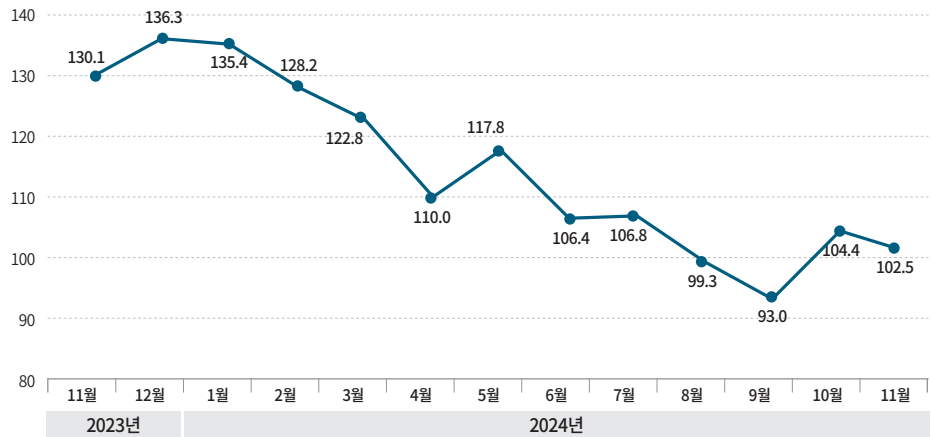
6) 철광석



1 '24년 11월 철광석 가격 전월 대비 1.8%, 전년 동월 대비 21.2% 감소한 102.5달러 기록

- ’24년 11월 철광석 가격(Fe 62%, 중국 칭다오항 도착 기준)은 톤당 102.5달러로 전년 동월 대비 6개월 연속 하락세를 기록함
- 10월 건설 성수기에 따른 수요 개선 기대감으로 상승한 철광석 가격이 시장의 실망감으로 다시 감소하면서 전월 대비 감소세로 전환됨
- 겨울철 심리 위축으로 12월 역시 철광석 가격의 하방 압력이 크겠지만 최근 중국 정부의 내수 활성화를 위한 정책 발표가 어느 정도 영향을 상쇄할 것으로 전망됨

철광석 가격 추이



구분	2023년		2024년											증가율(%)	
	11월	12월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전월 대비	전년 동월 대비
철광석	130.1	136.3	135.4	128.2	122.8	110.0	117.8	106.4	106.8	99.3	93.0	104.4	102.5	-1.8	-21.2

주: 62% 분광 중국 칭다오항 도착 기준
자료: 한국자원정보서비스, <https://www.komis.or.kr/komis/price/mineralprice/ironoreenergy/pricetrend/ironOreEnergy.do>(2024.12.20. 검색)

2 '25년 철광석 가격 압박 지속 전망³⁶⁾

- ING 국제은행은 '25년에도 철광석 가격이 지속적으로 압박받을 것으로 전망하였으며, 이에 따라 연평균 가격이 톤 당 95달러 수준을 기록할 것으로 예측함
 - 철강 수요 부진, 공급 증가, 항만 재고량 증가 등이 가격 하락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함
- 특히 글로벌 철강 수요의 약 40%를 차지하는 주요 산업인 중국의 부동산 시장의 침체로 철강 수요 부진이 이어질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해당 원인이 가장 큰 하방 압력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분석함
 - 철광석 시장은 중국 경제 부양책에 크게 의존하고 있으며, 지속적인 경기 회복과 성장 신호가 나타나지 않는 한 장기적인 가격 상승은 어려울 것으로 판단함
- 또한, '24년 세계 4대 철광석 주요 생산업체의 안정적인 생산량은 가격 하락과 중국 항만의 재고에 영향을 미쳤으며, 이는 '25년에도 유지될 것으로 전망함
 - 주요 철광석 생산업체들은 '25년에도 현 생산량을 유지할 계획이라 발표함
- 이에 따라 철광석 시장은 여전히 중국 경제 정책에 민감하며, 안정적인 수요 회복이 관건으로 남아 있음

이나영 전문연구원

051-797-4697, lny0326@kmi.re.kr

36) GMK center(2024.12.15.), <https://gmk.center/en/news/iron-ore-prices-to-remain-under-pressure-in-2025-ing/>(2024.12.20. 검색)

7) 기타광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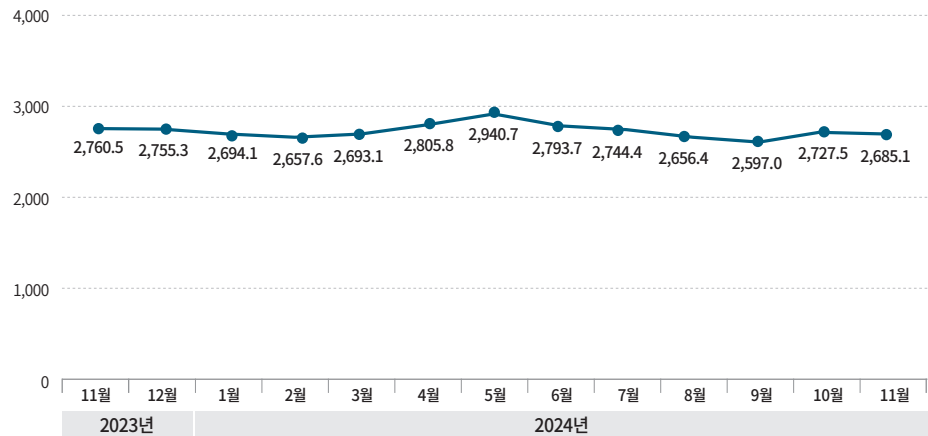


광물종합지수 추이

1 11월 광물종합지수는 2,685.1p로 전월 대비 1.6% 감소

’24년 11월 광물종합지수는 전월 대비 1.6% 감소하였으며, 전년 동월(2,727.5p) 대비 2.7% 감소한 2,685.1p를 기록함

(단위: 2016년 = 1,000 기준)



구분	2023년		2024년											증가율(%)	
	11월	12월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전월 대비	전년 동월 대비
광물종합 지수	2,760.5	2,755.3	2,694.1	2,657.6	2,693.1	2,805.8	2,940.7	2,793.7	2,744.4	2,656.4	2,597.0	2,727.5	2,685.1	-1.6	-2.7

주: 광물종합지수는 한국광해광업공단에서 전반적인 자원시황을 파악할 수 있도록 국내 수입금액 20위권 이내 광종 중 산업전략적 중요광물(동, 니켈, 아연, 리튬 등) 15개를 선정하여 자체 개발한 종합지수로서, 기준시점은 2016년 1월을 1,000으로 함. 매일 발표하며 월별 실적은 일별 데이터의 평균값을 산출함

자료: 한국자원정보서비스, <https://www.komis.or.kr/komis/price/priceStocks/pricestocks/priceStocks.do>(2024.12.26. 검색)

김영훈 전문연구원
051-797-4668, kyh@kmi.re.kr

2 포스코, 국내 수산화리튬 생산체계 완성³⁷⁾

- ▶ 포스코그룹이 이차전지용 수산화리튬 연산 4만 3천 톤 생산체계를 완성해 이차전지 산업에 필수적인 핵심광물을 국산화하는데 성공했다고 밝힘
- 포스코그룹 계열사인 포스코필바라리튬솔루션³⁸⁾은 지난 11월 29일 전남 울촌산업단지 내 광석 기반 수산화리튬 제2공장을 준공함
- 지난 '23년 11월 제1공장 준공 이후 1년여 만에 제2공장을 완성하면서 총 연산 4만 3천 톤 규모의 리튬 생산체계를 갖추
- 포스코필바라리튬솔루션은 그룹 내 양극재를 생산 중인 포스코퓨처엠에 수산화리튬을 최대 3만 톤 공급할 예정임
- 이에 따라 전 생산과정이 미국과의 자유무역협정(FTA) 체결국 내에서 이뤄져 미중 갈등 속 지정학적 리스크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또한 미국, 유럽연합(EU) 등 이차전지소재 원료에 대한 규제 환경 변화에 구애받지 않고 국내외 시장을 개척할 수 있음

김영훈 전문연구원

051-797-4668, kyh@kmi.re.kr

37) 연합뉴스(2024.11.29.), <https://www.yna.co.kr/view/AKR20241129047200003>(2024.12.20. 검색)

38) 포스코홀딩스와 호주 광산 회사인 필바라미네랄스가 합작하여 '21년 설립

8) 목재



1 '24년 1~11월 누적 원목 수입량은 152만 9천 m³로 전년 동기 대비 21.2% 감소

- 국내 부동산 및 건설경기 침체로 각재 수입은 감소하나, 목질판넬류는 국내 공급의 만성적 부족으로 수입이 증가함
 - 제재목 누적 수입량은 각각 전년 동기 대비 5.1% 감소하였으며, 성형목재 누적 수입량도 4.9% 감소함
 - 합판(3.5%), 파티클보드(12.1%), 섬유판(26.2%) 및 목재펠릿(6.9%)의 누적 수입량은 각각 전년 동기 대비 증가함
- 세계적인 건설경기 부진에 따른 목재 수요감소로 가격이 하락 또는 보합세를 유지하고 있음

국내 목재 품목별
수입현황

품목(단위)	2024년 누적(1-11월)	2023년 누적(1-11월)	증감률 (%)
원목(천m³)	1,529	1,940	-21.2%
제재목(천m³)	1,546	1,629	-5.1%
성형목재(톤)	72,467	76,184	-4.9%
합판(천m³)	1,257	1,215	3.5%
파티클보드(천m³)	1,267	1,130	12.1%
섬유판(천m³)	265	210	26.2%
목재펠릿(천 톤)	3,609	3,376	6.9%

자료: 산림청 해외목재유통정보(2024.12.26.), [https://www.forest.go.kr/kfsweb/cop/bbs/selectBoardArticle.do?nttId=3201692&bbsId=BB SMSTR_1067&pageIndex=1&pageUnit=10&searchtitle=title&searchcont=&searchkey=&searchwriter=&searchdept=&searchWrd=&ctgryLrcls=&ctgryMdcls=&ctgrySmcls=&ntcStartDt=&ntcEndDt=&orgId=&mn=AR01_04_02_03&component=\(2024.12.27. 검색\)](https://www.forest.go.kr/kfsweb/cop/bbs/selectBoardArticle.do?nttId=3201692&bbsId=BB SMSTR_1067&pageIndex=1&pageUnit=10&searchtitle=title&searchcont=&searchkey=&searchwriter=&searchdept=&searchWrd=&ctgryLrcls=&ctgryMdcls=&ctgrySmcls=&ntcStartDt=&ntcEndDt=&orgId=&mn=AR01_04_02_03&component=(2024.12.27. 검색))

이화섭 전문연구원
051-797-4646, hslee@kmi.re.kr

2 정부, 바이오매스 발전의 수입의존도 완화 및 국내산림 이용 활성화를 위한 개선방안 마련³⁹⁾

-  정부는 국내산림 자원의 활용을 촉진하고 바이오매스 발전 연료 시장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관계부처 합동으로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시행에 들어감

 - 산업통상자원부, 산림청, 환경부는 ‘바이오매스 연료·발전시장 구조 개선방안’을 제11차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에서 논의하고 확정함
 - 이번 방안은 ① 폐목재 재활용 확대, ② 미이용 바이오매스 관리 강화, ③ 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REC) 정책 지원 규모 조정을 주요 내용으로 함
-  폐목재 재활용 확대 정책

 - 가정 및 건설현장에서 발생하는 폐목재를 분류체계를 개선해 재활용 우선 원칙에 따라 활용함
 - 폐도장목, 폐목재포장재 등은 에너지 회수용도에서 제외하고 재사용 또는 재생이용이 가능하도록 개선함
 - 환경부는 폐목재 재활용 시장의 원료 공급 현황을 점검하고 수급 불균형 해소를 위해 관련 제도 추가 개선을 계획함
-  미이용 바이오매스 관리 강화 정책

 -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의 우선순위와 사용범위를 명확히 설정하고, 원목 혼입 방지 및 현장 관리·감독 기능을 강화함
 - 산림청은 「목재이용법」 및 「사범경찰직무법」 개정을 통해 거래질서를 확립하고 거짓·부정행위에 대해 엄중히 대응함
 - 산불 피해목과 같은 위험목 자원 활용 기준 설정 및 원재료 경합 우려를 해소함
-  REC 정책 지원 규모 조정 정책

 - 신규 목질계 바이오매스 발전설비에는 REC 미부여, 기존 상업운전 설비에는 REC 가중치를 단계적으로 축소함
 - 조정 대상은 원목 기반 목재펠릿 및 칩에 한정, 공공설비는 내년부터 우선 적용, 민간설비는 유예기간을 두고 점진적으로 조정함
-  정부는 이번 개선방안에 따라 관계 법령 개정 및 후속조치를 신속히 이행할 계획임

 - 상생협의체를 구성하여 업계 간 자발적 협력을 유도하고, 정책 효과를 3년 후 재검토할 예정임
 - 정부는 국내산림 자원의 활용을 통해 바이오매스 발전의 수입의존도를 완화하고 지속가능한 에너지 전환을 지원할 것으로 기대됨

이화섭 전문연구원

051-797-4646, hslee@kmi.re.kr

39) 산림청 보도자료(2024.12.18.), [https://m.dnews.co.kr/m_home/view.jsp?idxno=202411071330433700411\(2024.11.21. 검색\)](https://m.dnews.co.kr/m_home/view.jsp?idxno=202411071330433700411(2024.11.21. 검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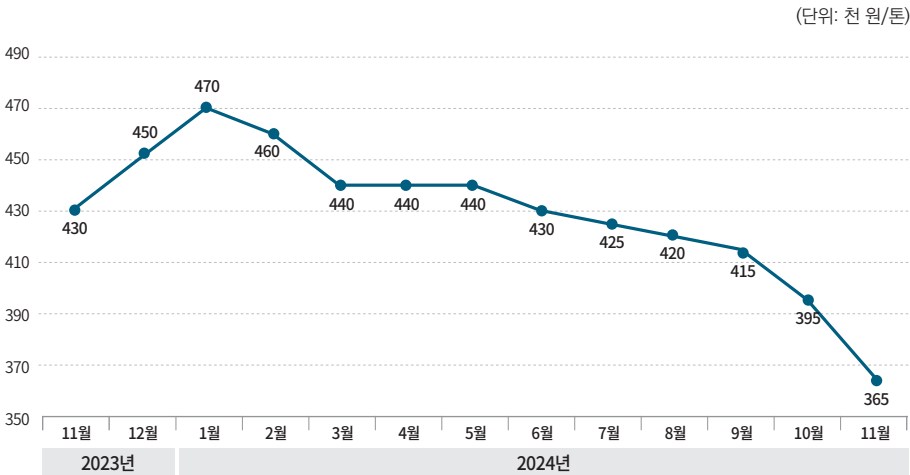
9) 고철



고철(생철)
연간 가격 추이

1 국내 고철 가격 하락세 심화

- 국내 11월 생철 가격은 전월 대비 7.6% 하락한 톤당 36만 5천 원을 기록했으며, 이는 전년 동월 대비 15.1% 하락한 수준임
- '24년 1월에 톤당 47만 원을 기록했던 고철 가격은 이후 10개월 연속 감소 또는 보합세를 기록하고 있음



구분	2023년		2024년											증가율(%)	
	11월	12월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전월 대비	전년 동월 대비
생철	430	450	470	460	440	440	440	430	425	420	415	395	365	-7.6	-15.1

자료: 산업통상자원부 원자재가격정보(2024.12.23.), <https://www.motie.go.kr/kor/contents/103>(2024.12.26. 검색)

조성현 연구원
051-797-4690, shcho@kmi.re.kr

2 글로벌 고철 가격 반등⁴⁰⁾

 독일 모젤강 사고 등 공급발 이슈로 글로벌 고철 가격의 선행 지표인 튀르키예 고철 수입 가격이 두 달 만에 반등함

- 12월 둘째 주, 튀르키예 고철 수입 가격은 미국산 HMS(80:20) 기준 톤당 352달러(CFR)로 전주 대비 15달러 증가하며 두 달 만에 반등함
- 12월 8일 독일 코블렌츠시 남쪽 뮈덴 모젤강에서 발생한 충돌사고로 수문이 손상돼 라인강으로 향하는 해운이 차단됐으며, 사고 복구를 위해 최소 내년 3월까지 운송이 중단될 것으로 전망돼 유럽산 고철 수급 차질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됨
- 룩셈부르크 항만을 통해 고철을 공급받는 아르셀로미탈, 딜링거 휴테, 자르슈탈 등 주요 제강사들의 물류 운영에 부정적 영향을 끼치고 있으며, 유럽산 고철의 고가 계약이 잇따르며 전반적인 글로벌 고철 가격을 끌어올리고 있는 것으로 분석됨

조성현 연구원

051-797-4690, shcho@kmi.re.kr

40) 철강금속신문(2024.12.18.), <http://pdf.snmnews.com/PDF/REAL/2024/12/18/PS011218010100301B0001.pdf>(2024.12.23. 검색)

10) 철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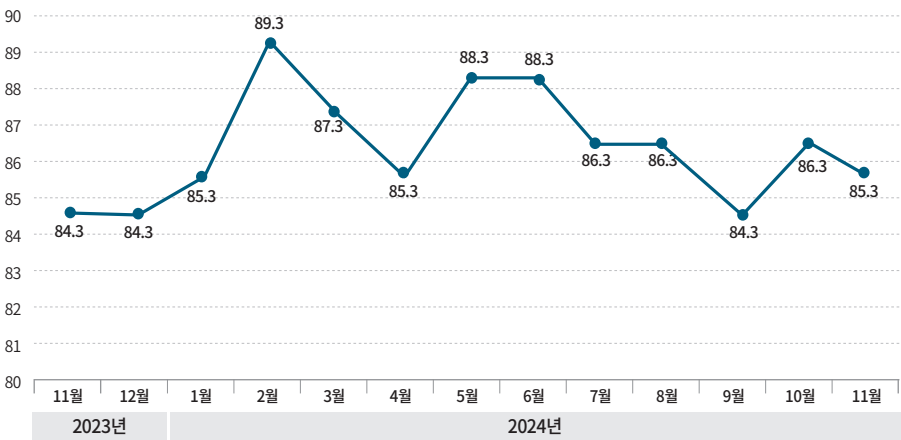


열연코일 연간 가격 추이

1 국내 열연코일 가격 감소

- 11월 열연코일(3.0×4×8mm) 가격은 전월 대비 1.2% 하락한 85만 3천 원을 기록했으며, 이는 전년 동월 대비 1.2% 상승한 수준임
- '23년 5월까지 톤당 108만 원대를 기록했던 열연코일 가격은 '23년 6월부터 급격히 하락하여 '23년 7월부터 꾸준히 톤당 80만 원~90만 원대 초반을 유지하고 있음

(단위: 만 원/톤)



구분	2023년		2024년											증가율(%)	
	11월	12월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전월 대비	전년 동월 대비
열연코일	84.3	84.3	85.3	89.3	87.3	85.3	88.3	88.3	86.3	86.3	84.3	86.3	85.3	-1.2	1.2

자료: 산업통상자원부 원자재가격정보(2024.12.23.), [https://www.motie.go.kr/kor/contents/103\(2024.12.26. 검색\)](https://www.motie.go.kr/kor/contents/103(2024.12.26. 검색))

조성현 연구원

051-797-4690, shcho@kmi.re.kr

② 철강업계, 고환율에 제조원가 부담 가중⁴¹⁾

-  철광석, 원료탄 등의 철강원료 가격은 큰 변화가 없는 가운데, 1,400원대 이상의 원·달러 환율이 이어지며 철강업계의 원가 부담이 가중되고 있음
 - 국내 철강업계는 제품 생산에 필요한 철광석과 원료탄 공급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으며, 환율 강세(원화 가치 하락)에 따라 원재료 구매 비용이 증가할 수 있음
 - 현재 철강업계는 수출로 확보한 달러화로 원료를 구매하여 리스크를 줄이고 있으나, 고환율 추세가 장기화한다면 점차 부담이 가중될 것으로 예상됨
 - 또한, 환율 변화에 따라 제품 수입 또한 위축될 전망으로, 국내로 유입되는 수입산 열연강판 가격의 증가세, 연말 및 연초 비수기 시자향, 재고 조정 등의 이유로 수입 물량은 내년 1분기까지 수입 물동량이 확연히 감소할 것으로 전망됨

조성현 연구원

051-797-4690, shcho@kmi.re.kr

41) 철강금속신문(2024.12.23.), <http://pdf.snmnews.com/PDF/REAL/2024/12/23/PS011223010100601B0001.pdf>(2024.12.23. 검색)

11) 자동차



1 '24년 10월 국내 자동차산업, 전월 대비 내수·수출·생산 모두 증가⁴²⁾

- 10월 내수는 전월 대비 11.5%, 전년 동월 대비 3.1% 증가를 기록함
 - 르노코리아와 KGM의 신차효과로 반등했으나, 기아 부품사 파업 영향과 자동차 시장 전반의 소비심리 악화로 전년 동월 대비 2.3% 감소한 13만 688대를 기록함
 - 수입차가 6.4% 감소했으나 국산차는 르노코리아의 그랑콜레오스와 KGM 액티언의 신차효과 지속, 현대·기아 인기 모델의 판매 지속으로 전년 동월 대비 5.1% 증가한 122,841대를 판매하면서 전체 내수는 올해 처음으로 증가 전환함
 - 친환경차는 EV(Electric Vehicle)를 대체하는 소비자 수요가 HEV(Hybrid Electric Vehicle)에 집중되면서 큰 증가 폭을 보이며 전체 친환경차 판매 성장에 기여하면서 전년 동월 대비 27.9% 증가한 62,793대를 기록함
- 10월 수출·생산은 전월 대비 각각 18.4%, 19.7%, 전년 동월 대비 각각 8.2%, 7.8% 증가함
 - 수출은 르노코리아와 한국지엠의 임단협 기간 생산 차질 물량 만회하고, 기아의 EV3 초도물량 선적, HEV 수출 증가세 지속 등으로 전년 동기 대비 8.2% 증가한 243,408대를 기록함
 - 생산은 전 업체 임단협 완료에 따른 생산 원활화와 업체별 신차효과로 내수와 수출 모두 증가 전환되면서 전년 동월 대비 7.8% 증가한 367,622대를 기록하였으나, 현대는 동희산업 화재와 현대트랜시스 파업에 따른 생산 차질로 유일하게 5.5% 감소함

단위 : 대, 백만 \$, %

'24년 10월 국내 자동차산업 동향

구분	2023년			2024년			증감률		
	연간	10월	1~10월	9월	10월	1~10월	전월 대비	전년 동월 대비	전년 동기 대비
내수	1,739,249	141,349	1,435,528	130,688	145,756	1,335,582	11.5	3.1	-7.0
(국산차)	1,451,663	116,863	1,204,177	104,282	122,841	1,105,382	17.8	5.1	-8.2
(수입차)	287,586	24,486	231,351	26,406	22,915	230,200	-13.2	-6.4	-0.5
수출	2,766,271	225,030	2,274,135	205,628	243,408	2,306,147	18.4	8.2	1.4
(완성차 수출액)	70,864	5,880	57,950	5,483	6,201	59,117	13.1	5.5	2.0
(부품 수출액)	22,954	1,770	19,261	1,813	1,875	18,909	3.4	5.9	-1.8
생산	4,243,597	341,024	3,505,453	307,026	367,622	3,410,523	19.7	7.8	-2.7

자료: 한국자동차모빌리티산업협회 산업동향(2024.11.29.), https://www.kama.or.kr/NewsController?cmd=V&boardmaster_id=industry&board_id=12329&menunum=0004&searchGubun=&searchValue=&pagenum=1(2024.12.24. 검색)

신정훈 전문연구원

051-797-4695, jh.gary.shin@kmi.re.kr

42) 한국자동차모빌리티산업협회 산업동향(2024.11.29.), https://www.kama.or.kr/NewsController?cmd=V&boardmaster_id=industry&board_id=12329&menunum=0004&searchGubun=&searchValue=&pagenum=1(2024.12.24. 검색)

2 한국자동차모빌리티산업협회(KAMA), 내년 자동차 수출 4.2% 감소한 680억 달러 전망⁴³⁾

 KAMA의 보고서에 따르면 내년 국내 자동차산업은 내수는 소폭 반등하겠지만, 수출과 생산은 감소할 전망이다

- 내수는 인플레이션 완화와 금리 인하 기대, 전년도 부진의 기저효과로 1.3% 증가한 166만 대 판매가 예상됨
- 수출은 한미 통상환경 악화와 역기저효과, 해외 생산 증가 등으로 3.1% 감소한 270만 대 수준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되며, 완성차 수출액은 4.2% 감소한 680억 달러에 그칠 것으로 보임
- 전기차 수출은 글로벌 전기차 캐즘 영향과 미국 세액 공제 요건 강화로 인해 전년 대비 5.0% 감소했으나, 하이브리드 차량(HEV) 수출은 올해 38.7% 증가하며 친환경차 수출의 주요 품목으로 자리 잡음
- 생산은 내수 반등에도 불구하고 수출용 차량의 생산 감소로 인해 1.4% 줄어든 407만 대가 예상됨

 한편, 전기차 수요 감소와 글로벌 통상환경 변화로 내년도 자동차산업 여건은 녹록지 않을 전망이다

- 중국의 저성장 기조와 전기차 시장 둔화는 자동차 수출 시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음
- 국내 생산 경쟁력 확보와 수요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정부와 노사 간 협력적 관계가 필요하다는 요구가 제기되고 있음

신정훈 전문연구원

051-797-4695, jh.gary.shin@kmi.re.kr

43) 아이뉴스24(2024.12.05.), [https://www.inews24.com/view/1790878\(2024.12.24.검색\)](https://www.inews24.com/view/1790878(2024.12.24.검색))

3 현대차, 중국 베이징현대에 1.6조 원 투입⁴⁴⁾

- **현대자동차와 중국 BAIC는 양사의 합작법인인 베이징현대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약 1조 6,000억 원 규모의 대규모 증자를 단행함**
 - 양사는 각각 절반씩 출자하며, 자본 안정성을 유지하고 지속 가능한 성장을 목표로 함
 - 이번 증자는 신기술 및 신제품 연구개발을 통해 중국 소비자 수요에 맞는 미래차를 출시하려는 전략의 일환임
 - 베이징현대를 글로벌 수출 거점으로 육성하며 ‘중국에서 세계로(In China for Global)’ 전략을 본격화할 계획임
- **또한, 현대차와 BAIC는 중국 내 친환경차 시장에서 반등을 목표로 신차 출시와 연구개발 역량 강화를 추진하고 있음**
 - 양사는 내년 첫 전용 전기차 모델 출시를 시작으로, ’26년까지 하이브리드차(HEV)를 포함한 신에너지차(NEV) 5종을 선보일 계획임
 - 중국 연태 기술연구센터와 상하이 선행 R&D센터를 통해 전동화 및 미래 기술 분야 연구개발 능력을 강화하고 있음
 - 현대차는 ’16년 114만 대에 달하던 중국 내 판매량이 ’23년 24만 9천 대로 급감한 상황에서 베이징 1공장, 충칭 공장 등을 매각하고 합작법인 운영을 통한 효율화를 추진하고 있음
 - 현대차 관계자는 이번 증자를 베이징현대의 자본 안정성과 혁신을 위한 전환점으로 평가하고 있음

신정훈 전문연구원

051-797-4695, jh.gary.shin@kmi.re.kr

44) 한국경제TV(2024.12.12.), [https://www.wowtv.co.kr/NewsCenter/News/Read?articleId=A202412120480&t=NN\(2024.12.24. 검색\)](https://www.wowtv.co.kr/NewsCenter/News/Read?articleId=A202412120480&t=NN(2024.12.24. 검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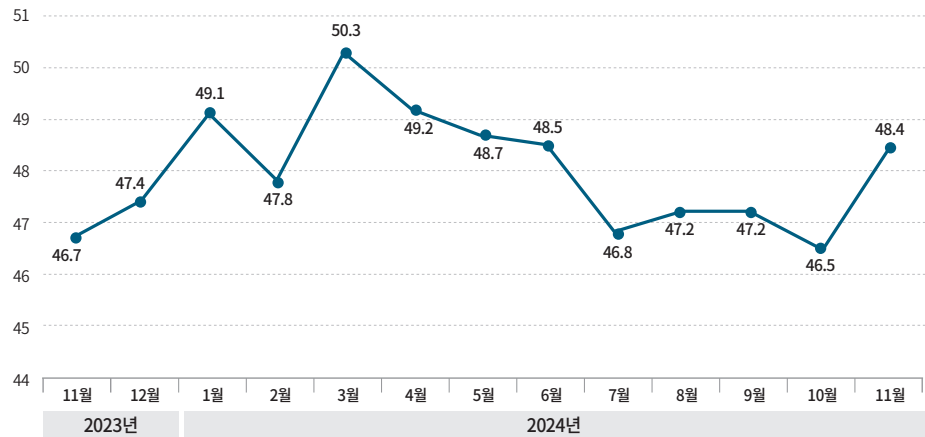
12) 잡화



미국 PMI
(구매관리자지수) 추이

1 미국 공급자관리협회(ISM), 11월 제조업 구매관리자지수(PMI)는 48.4p로 전월 대비 상승⁴⁵⁾

- 11월 PMI지수는 전월(46.5p) 대비 상승하였으며, 시장의 예상(47.5p)과 비교하여 높은 상승세를 보임
 - 생산 및 고용, 재고에 있어 하락 폭이 다소 줄어들었으며, 신규 주문은 지난 7개월간 감소 추세에서 반등한 것으로 나타남
 - 이에 공급업체에서는 배송시간(리드타임)이 개선되는 것으로 관찰되지만 여전히 수요는 약세가 지속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제조업 부문이 축소 국면에 있는 것으로 보임



자료: Trading Economics(2024.12.02.), KMI 작성

최상균 전문연구원
051-797-4699, sgchoi@kmi.re.kr

45) Trading Economics(2024.12.02.), <https://tradingeconomics.com/united-states/business-confidence> (2024.12.23. 검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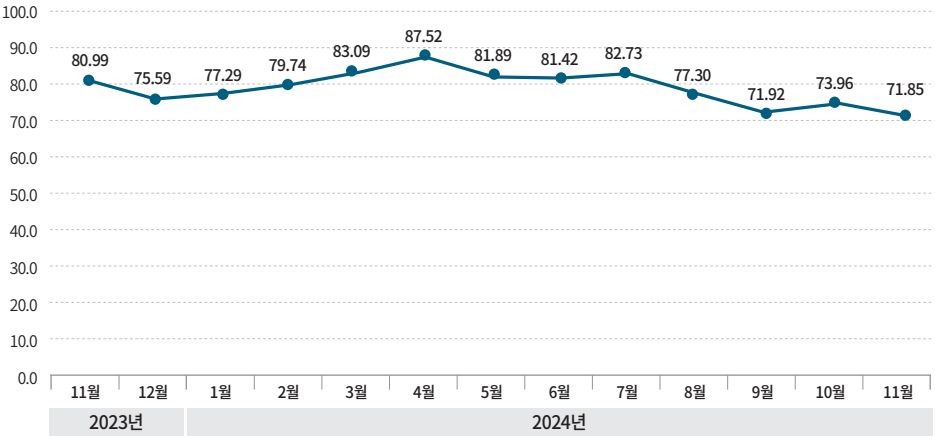
13) 유류



1 '24년 11월 국제유가, Dubai, Brent, WTI 모두 전월 대비 하락

- ’24년 초 증가하던 국제유가는 4월 이후 하락세로 전환되었으며, 7월과 10월 소폭 반등하기도 했으나 대세 하락하면서 11월 세계 3대 유종의 배럴당 평균 유가는 71.85달러를 기록함
- 지속되는 OPEC+ 중심의 석유 감산 정책에도 중국을 중심으로 수요 부진이 지속되면서 유가가 크게 상승하지 않고 있으며, 미국 대통령에 트럼프가 당선되면서 친환경 전환 속도가 늦어지면서 향후 이 같은 추세가 이어질 수 있을 것으로 보임
 - 다만, 러-우 전쟁과 이-팔 전쟁이 장기화되고 있으며, 중동을 중심으로 하는 갈등이 지속되고 변동성이 심화되면서 유동적인 시장 상황은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보임

국제 원유 가격 추이



구분	2023년		2024년											증가율(%)	
	11월	12월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전월 대비	전년 동월 대비
Dubai	83.55	77.33	78.85	80.88	84.18	89.17	84.04	82.56	83.83	77.60	73.52	74.94	72.61	-3.1	-13.1
Brent	82.03	77.32	79.15	81.72	84.67	89.00	83.00	83.88	78.88	72.87	75.38	73.40		-2.6	-10.5
WTI	77.38	72.12	73.86	76.61	80.41	84.39	78.62	78.70	80.48	75.43	69.37	71.56	69.54	-2.8	-10.1
평균	80.99	75.59	77.29	79.74	83.09	87.52	81.89	81.42	82.73	77.30	71.92	73.96	71.85	-2.9	-11.3

자료: 한국석유공사 페트로넷 유가동향 국제유가, [https://www.petronet.co.kr/v4/sub.jsp?fmulid=KDFQSTAT&smulid=KDFQ01&tmulid=KDFQ0100&fmuOrd=03&smuOrd=03_01&tmuOrd=03_01_01\(2024.12.24. 검색\)](https://www.petronet.co.kr/v4/sub.jsp?fmulid=KDFQSTAT&smulid=KDFQ01&tmulid=KDFQ0100&fmuOrd=03&smuOrd=03_01&tmuOrd=03_01_01(2024.12.24. 검색))

2 OPEC+, 가격하락 방어를 위해 원유 감산 '26년까지 연장'⁴⁶⁾

 OPEC+는 기존 감산 조치를 '26년까지 연장하며 원유 가격 하락 방지를 위한 장기적인 조치를 강화함

- 감산 규모는 OPEC+ 참가국 23개국 전체가 참여하는 하루 200만 배럴의 '공식 감산'과 사우디아라비아 등 주도국 8개국의 165만 배럴 감산하는 '1단계 자발적 감산'이 기존 '25년에서 '26년 말까지 1년 연장됨
- 다만, 주도국 8개국의 하루 220만 배럴 규모의 '2단계 자발적 감산'은 '25년 4월부터 단계적으로 증산으로 전환될 예정임
- OPEC은 최신 보고서에서 원유 수요 증가 전망을 낮춘바 있으며, 미 대선에 트럼프 당선에 따른 원유 증산 정책이 감산에 영향을 준 것으로 보임
- 다만, 감산 연장 조치에도 국제유가는 큰 반응 없이 안정된 가격대를 유지하고 있음

신정훈 전문연구원

051-797-4695, jh.gary.shin@kmi.re.kr

46) SBS Biz(2024.12.06.), <https://biz.sbs.co.kr/article/20000205507?division=NAVER>(2024.12.24. 검색)

3 사우디아라비아, 글로벌 원유시장 지배력 약화로 수출 원유 가격 인하⁴⁷⁾

사우디아라비아가 아시아 수출 원유 가격을 인하하며 글로벌 원유 수요 약세 속에서 OPEC+의 영향력 약화가 드러남

- 아랍코는 '25년 1월 인도분 '아라비아 라이트'의 아시아 판매 가격을 기존보다 배럴당 80센트 인하했으며, 북서 유럽과 지중해 지역의 원유 가격도 추가 인하가 예상됨
- 공급 과잉 우려와 중국의 수요 약세로 국제유가가 하락세를 유지하는 가운데, OPEC+는 '25년 4월까지 증산 계획을 또다시 연기하며 글로벌 수요 둔화에 대응하고 있음

사우디아라비아의 원유 시장 지배력은 미국의 셰일 생산 증가, OPEC 내부 갈등, 세계적인 수요 감소로 약화되고 있음

- 미국의 셰일 생산량은 '25년 하루 1,350만 배럴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는 사우디 생산량보다 약 47% 많으며, 트럼프 당선인의 규제 완화 정책으로 향후 생산량 증가가 예상됨
- OPEC 회원국인 UAE와 이라크는 사우디의 고유가 정책에 반발하며 생산 증대를 요구하고 있음
- 중국의 경기 둔화와 전기차 확산은 전 세계 원유 수요를 더욱 감소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

신정훈 전문연구원

051-797-4695, jh.gary.shin@kmi.re.kr

4 국제에너지기구(IEA), 내년도 원유 과잉 공급 및 국제유가 하락 전망⁴⁸⁾

IEA는 '24년 원유 수요 증가 전망치를 소폭 상향했으나, 공급 과잉 우려는 여전히 지속될 것으로 예측함

- IEA는 내년 원유 수요 증가량을 하루 99만 배럴에서 110만 배럴로 상향 조정함
- 리비아 등 주요 산유국들의 안정적 생산, 비OPEC+ 국가의 원유 공급으로 원유 공급 부족 발생 가능성은 낮을 전망이다
- 다만, 내년 OPEC+ 증산 시기와 관련한 불확실성은 여전히 높은 상태임

신정훈 전문연구원

051-797-4695, jh.gary.shin@kmi.re.kr

47) 조세일보(2024.12.09.), <https://www.joseilbo.com/news/htmls/2024/12/20241209531897.html>(2024.12.24. 검색)

48) 비즈니스포스트(2024.12.13.), https://www.businesspost.co.kr/BP?command=article_view&num=376506(2024.12.24. 검색)

14) 화학공업
생산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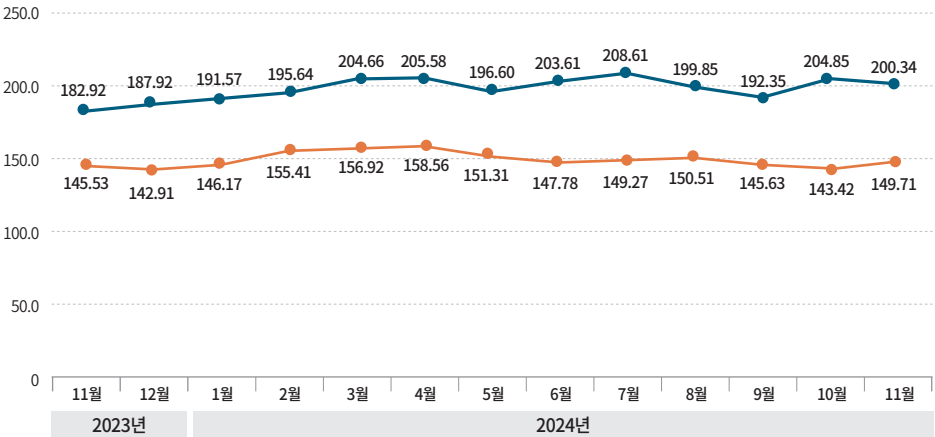
생산자물가지수 추이

● 나프타
● 에틸렌

1 11월 생산자물가지수, 전월 대비 나프타 하락·에틸렌 상승

11월 생산자물가지수는 나프타가 전월 대비 하락하여 200.34p, 에틸렌이 상승하여 149.71p를 기록함

- 원유 정제를 통해 생산되는 나프타의 '24년 10월 생산자물가지수는 원유 가격 하락으로 인해 전월 대비 2.2% 하락, 전년 동월 대비 9.5% 상승함
- 나프타 크래킹 등을 통해 생산되는 석유화학산업의 핵심원료인 에틸렌의 '24년 11월 생산자물가지수는 전월 대비 4.8%, 전년 동월 대비 2.9% 상승함
- 유가 하락으로 11월 나프타 생산자물가지수가 하락했으나 에틸렌은 지난달 나프타 지수 상승이 반영되면서 상승했으나, 일반적으로 에틸렌의 생산자물가지수가 나프타에 후행하는 만큼 에틸렌 생산자물가지수도 12월에는 하락할 가능성이 있음



구분	2023년		2024년											증가율(%)	
	11월	12월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전월 대비	전년 동월 대비
나프타	182.92	187.92	191.57	195.64	204.66	205.58	196.60	203.61	208.61	199.85	192.35	204.85	200.34	-2.2	9.5
에틸렌	145.53	142.91	146.17	155.41	156.92	158.56	151.31	147.78	149.27	150.51	145.63	142.80	149.71	4.8	2.9

자료: 국가통계포털 생산자물가지수(원자료: 한국은행 생산자물가조사), [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301&tblId=DT_404Y016&vw_cd=MT_ZTITLE&list_id=P2_301002&seqNo=&lang_mode=ko&language=kor&obj_var_id=&itm_id=&conn_path=MT_ZTITLE\(2024.12.24. 검색\)](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301&tblId=DT_404Y016&vw_cd=MT_ZTITLE&list_id=P2_301002&seqNo=&lang_mode=ko&language=kor&obj_var_id=&itm_id=&conn_path=MT_ZTITLE(2024.12.24. 검색))

신정훈 전문연구원
051-797-4695, jh.gary.shin@kmi.re.kr

2 정부, 석유화학업계에 「기업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 기준 완화 적용을 통한 구조조정⁴⁹⁾⁵⁰⁾

- 정부는 석유화학 업종의 구조조정을 본격화하기 위해 완화된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을 적용할 계획임
 - 기존 10년·3년 실적 기준에서 최근 20개 분기와 4개 분기를 비교하는 방식으로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 기준을 완화함
 - 완화된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 적용으로 M&A 간소화, 주주총회 대신 이사회 승인, 세제 혜택 등 사업 재편이 가속화될 전망임
 -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 외에도 세제 혜택, 정책 금융 지원, 관세 경감 등 추가적인 경쟁력 강화 방안이 논의되고 있음
 - 저가 공세로 어려움을 겪는 철강업 등 타 업종과 함께 석유화학 업종의 위기 극복을 위한 다양한 대책이 병행될 예정임
- 업계는 생산구조 재편을 위한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과 규제 완화를 요구하고 있음
 - 업계는 생산구조 재편을 위한 기업 간 합병이 독과점 규제에 막혀 있어 독과점 규제 완화와 과세 감면 등 공정거래법의 한시적 완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음
 - 현행법상 특정 거래 분야 시장 점유율 50% 초과 시 기업 간 합병이 독과점으로 간주되어 사업 재편이 어려움

신정훈 전문연구원

051-797-4695, jh.gary.shin@kmi.re.kr

49) 매일경제(2024.12.11.), <https://www.mk.co.kr/news/economy/11192300>(2024.12.24. 검색)

50) 파이낸셜뉴스(2024.12.11.), <https://www.fnnews.com/news/202412111106215518>(2024.12.24. 검색)

3 LG화학, NCC 매각 임박⁵¹⁾

 LG화학의 여수 나프타분해시설(NCC) 2공장 매각이 임박하면서 국내 석유화학 산업의 구조조정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전망됨

- LG화학은 쿠웨이트석유공사의 자회사 PIC와 지분 51:49로 합작법인을 설립하여 유동성 부담을 덜고 경영권을 유지할 계획이며, 매각 대상은 NCC 2공장과 폴리올레핀(PO) 생산시설로 두 시설의 생산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통합 매각 방안을 마련함
- 여수 NCC 2공장의 연간 에틸렌 생산능력은 약 80만 톤으로, 국내 석유화학 업계 점유율 1위를 지키는 데 중요한 자산임
- 이번 매각은 비교적 최신 설비와 업스트림부터 다운스트림까지 경쟁력을 갖춘 점이 성사 요인으로 작용함

 국내 석유화학 산업은 정부 지원 부족과 시장 과잉 공급 속에서 각 기업이 독자적으로 구조조정을 모색하는 상황에 놓여 있음

- 정부는 석유화학 업계 위기 극복을 위한 제도적 지원 방안을 계획했으나, 최근 비상계엄 사태로 발표가 지연되고 있음
- 정부는 인위적 구조조정보다는 기업별 자구안을 중시하는 방식을 고려하고 있으나, 롯데케미칼 등 다른 업체들은 매각 대상 자산의 경쟁력 부족으로 매각 작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
- 업계는 LG화학의 매각이 성공해야 다른 업체들도 구조조정에 동참할 기회를 가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음

신정훈 전문연구원

051-797-4695, jh.gary.shin@kmi.re.kr

51) 이데일리(2024.12.10.), [https://www.edaily.co.kr/News/Read?newsId=03876966639117208&mediaCodeNo=257&OutLnkChk=Y\(2024.12.24. 검색\)](https://www.edaily.co.kr/News/Read?newsId=03876966639117208&mediaCodeNo=257&OutLnkChk=Y(2024.12.24. 검색))

연구책임자

최석우 향만수요분석연구실장

연구진

이기열 향만수요분석연구실 연구위원

김영훈 향만수요분석연구실 전문연구원

신정훈 향만수요분석연구실 전문연구원

이나영 향만수요분석연구실 전문연구원

이화섭 향만수요분석연구실 전문연구원

최상균 향만수요분석연구실 전문연구원

조성현 향만수요분석연구실 연구원

감리

김근섭 향만연구본부장

항만과 산업

국내·외 항만 및 품목 동향

발행일 2024년 12월 31일

편집·발행인 김종덕 원장

발행처 한국해양수산개발원 향만연구본부 향만수요분석연구실
49111 부산광역시 영도구 해양로 301번길 26
(동삼동 한국해양수산개발원) www.kmi.re.kr
TEL 051-797-4800 **FAX** 051-797-4810

편집디자인 크리커뮤니케이션 **TEL** 02-2273-1775